



소  
관  
재  
민  
중  
선  
상

브레멘(Bremen), 독일(Germany) | 07 - 10 2013년 12월

스 리 랑 카 에 대 한  
민 중 법 정

상설 민중 재판소

창립자

렐리오 바소(Lelio Basso, 이탈리아)

대표

살바토레 세네세(Salvatore Senese, 이탈리아)

사무총장

지아니 토그노니(Gianni Tognoni, 이탈리아)

Fondazione Lelio Basso Sezione Internazionale, Via della Dogana Vecchia, 5 - 00186 Roma, Italia

Tel/Fax: 0039 066877774

E-mail: [pptribunal@internazionaleleliobasso.it](mailto:pptribunal@internazionaleleliobasso.it) [tribunale@internazionaleleliobasso.it](mailto:tribunale@internazionaleleliobasso.it) [filb@iol.it](mailto:filb@iol.it)

Web: <http://www.internazionaleleliobasso.it>

## 상설 민중 재판소

###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법정

2013년 12월 7일-10일

#### 장소

성바오로 교회(Gemeindezentrum und Kirche St. Pauli)

브레멘, 독일

#### 주최

국제인권협회 - 브레멘

[imrvbremen@gmail.com](mailto:imrvbremen@gmail.com)

스리랑카 평화를 위한 아일랜드 포럼

[irishpeaceforum@gmail.com](mailto:irishpeaceforum@gmail.com)

#### 실행

상설 민중 재판소

Fondazione Lelio Basso Sezione Internazionale

Via della Dogana Vecchia

5 - 00186 Roma Italia

[pptribunal@internazionaleleliobasso.it](mailto:pptribunal@internazionaleleliobasso.it)

우리는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법정의 판결을 지지하며, 엘람 타밀의 인권과 국민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 한국어판 역자:

강희주 (Kang, Hee Ju)

김동진 (Kim, Dong Jin), 평화문화연구원 (Peace Culture Institute in Korea)

김명신 (Kim, Myoung-Shi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Labor Union-Presiden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고수미 (Koh, Soomie), 섬김 인터네셔널 (Serving Society International)

박노성 (Park, Noseong),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박소임 (Park, Soim), 국립중앙의료원 한방내과 (Chief resident in the department of Korean internal medicine, National Medical Center)

박선교 (Park, Sun Kyo), WCC EAPPI 에큐메니칼 파트너 (Ecumenical Partner)

신정현 (Shin, Jung Hyun), 시민활동가 (Civil Activist)

손종도 (Son, Jongdo),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Korean sharing movement)

양재섭 (Yang, Jae Sub),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of Daegu University)

이경은 (Lee, Kyoung eun), 서울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Seoul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이덕영 (Lee, Deokyeong), 어린이재단 (ChildFund Korea)

이미혜 (Lee, Mihye)

이예정 (Yi, Yehjung),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Korean Sharing Movement)

이지윤 (Lee, Jiyun), 성균관대학교 중국학연구소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임영섭 (Lim, Young Sub), 경동교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오은경 (Oh Eun-kyung)

윤영상 (Yun, Youngsang)

장근영 (Jang, Keunyeong),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Korean sharing movement)

조비연 (Jo, Beeyun),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정국진 (Jeong, Kuk-jin), 동북아 평화연구자 (Northeast Asia Peace Researcher)

한광희 (Han, Kwanghee),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한나영 (Han, Nayoung), 평화삼천 (The Corea Peace3000)

## 목차

재판부 구성원	05
1. 상설 민중 재판소의 권한	07
2. 스리랑카에 대한 2010년 1월 더블린 제1차 재판의 판결	09
3. 기소	11
4. 변론	13
5. 판결	15
6. 권고	43
7. 결어	46
8. 원고측 최종 구형문 발췌	47
9. 부록: 사진, 영상, 서면 진술서	53

## 재판부 구성원



페에르스테인, 다니엘 (공동의장)

드 트레 드 페브레로 (De Tres de Febrero) 국립대학교 집단학살(Genocide)학 센터장,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의 교수이며 아르헨티나 국립과학기술연구위원회 (CONICET)의 위원. 국제 집단학살학회장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nocide Scholars).



할리데이, 데니스 (공동의장)

전 UN 사무차장보. 이라크에 대한 UN의 경제 제재에 반대하기 위해 UN에서의 34년 경력을 사임. 간디 평화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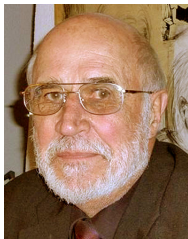
가리비안, 세바네

집단학살학과 국제법 전문가. 제네바 대학교 조교수 뇌샤텔 대학교의 강사로 법철학과 국제형법을 강의. 국가 범죄와 관련된 법 문제를 주 연구 분야로 삼고 있음.



게르거, 하루크

존경받는 학자이며 중동분석가. 정치적인 활동으로 터키에 감금되기도 함. 쿠르드족의 민족자결권 권리에 대한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음.



힌즈, 맨프레드 오

브레멘대학교의 공법, 정치사회학과 법사회학 교수. 아프리카 특히, 나미비아와 서부 사하라 지역 해방투쟁과 오랜 기간 연대해 옴. 수년 동안 나미비아 대학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네스코 석좌교수로 활동.



자비스, 헬렌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의 공보과 수석을 역임. ECCC는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UNAKRT)를 통해 국제 지원을 받고 있음. 이 재판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 또는 캄보디아 특별재판이라는 비공식적인 명칭으로 흔히 일컬어지기도 함.



**몰토, 조세 엘리아스 에스테브**

국제변호사이자 티벳의 법률전문가. 티벳에서 행해진 국제범죄와 최근 버마의 범죄상에 대한 소송 초안을 쓰고 조사한 주요 변호사 중 하나임.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교의 국제법 교수.



**모레노, 자비에르 길라도**

콜롬비안 신학자이자 보고타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 집단학살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잘 알려져 있음. 상설민중재판소의 부소장.



**모르테, 가브리엘 델라**

밀라노 대학교 국제법 교수이자 국제 체제의 제도와 규칙 부교수,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제네바 인권선언 관련 국제 인도법 강사 (2007-2008),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R, 2003~2004), 구 유고 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청 재판연구원 (2000), 국제형사재판소 ICC 1998) 정부 대표단 임원.



**토그노니, 지안니**

상설민중재판소 사무총장



**트베터, 퀴스테인**

노르웨이 국제법 학자. 필리핀 인권 탄압과 폭력에 대한 상설 민중 재판소 구성원



**자르니, 마웅**

1995 자유버마연맹(FBC)을 설립한 버마의 인권활동가. 로힝야(Rohingya) 이슬람교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차별과 폭력을 반대하고 나선 몇 안 되는 버마의 지식인 중 한 명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웅산 수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함.

## 1. 상설 민중 재판소의 권한

상설 민중 재판소(Permanent Peoples' Tribunal: PPT)는 국제적 견해를 밝히는 재판소로,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다. PPT는 인권과 민중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심문한다.

PPT는 1979년 6월에 이태리의 볼로냐에서 '민중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렐리오 바소 국제 재단(Lelio Basso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the Rights and Liberation of Peoples)'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 31개 나라의 다양한 영역의 법률 전문가, 작가, 그리고 기타 문화계와 공동체 지도자들(5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이 참여하였다. PPT는 베트남의 러셀 재판소들(1966-67)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정부들(1974-1976)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둔다. PPT가 내리는 결정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재판부 구성원의 신뢰성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신뢰할만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원인규명과 논쟁의 도덕적 무게에 달려있다.

PPT의 목적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지정학적 원인 또는 다른 동기로 인해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 민중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재판소에서 심리하는 고소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를 대신하는 그룹이나 개인에 의해 제기된다. PPT는 관계자들을 함께 소환하고 피고에게 변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재판부는 각 사건마다 새로 구성원을 선정하는데, 상설 명단에 속한 구성원과 더불어 능력과 진실성 면에서 명망 높은 개인들을 조합하여 구성한다.

1979년 6월부터 현재까지 PPT는 40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와 판결은 [www.internazionaleleliobasso.it](http://www.internazionaleleliobasso.it)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2년 12월부터 광범위한 영역의 NGO 대표들이 스리랑카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위해 PPT 사무국(Secretariat)과 긴밀히 접촉해 왔다. 타밀 집단 학살이 국제 미디어의 관심으로부터 “사라지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의 이를 공공연하게 묵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PPT가 분명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졌다.

PPT 재판 소집 요청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재판이 열리기 수개월 전에 배부되었다. 브레멘(Bremen)에서 열리는 PPT 재판에 대한 초청 및 참여 절차를 공지하기 위해, 2013년 11월 12일, 베를린과 로마에 있는 각국 대사관을 통하여 스리랑카, 인도, 미국과 영국 정부 대표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

PPT 법규에 따라서, 그리고 공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공식 대표를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PPT는 혐의를 지닌 피고 4개 정부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조사위원을 위임했다. PPT의 업무는 독일 브레멘의 성 파울리 게마인데(St. Pauli Gemeinde)의 한 시설에서 진행되었다.

보안을 위해서 몇몇 경우, 재판부 구성원들은 목격자의 상세한 증언을 카메라를 통해 비공개로 청취하고 심리하였다.

PPT는 재판에 소요되는 조직적 그리고 재정적 필요가 거의 대부분 이 계획을 지지하는 NGO들의 자발적 활동에 의해 충당되었다는 점을 보증한다.

구두 청취와 반대 심문뿐만 아니라, PPT에 의해 제시되고 심리된 서면 혹은 영상 자료들은 부록2에 게재하였고, ptsrilank.org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다.

## 2. 스리랑카에 대한 2010년 1월 더블린 제1차 재판의 판결

2010년 1월 더블린에서 개최된 스리랑카에 대한 상설 민중 재판소의 첫 번째 재판은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판결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 범죄는 판결 당시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sup>1</sup>

첫 번째 재판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이 재판소에 요구된 심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증언을 한 일부 단체와 개인은 스리랑카의 타밀(Tamil) 인구에 대한 집단학살로 보아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혹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추가로 집단학살 범죄를 판결하기에는 재판에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sup>2</sup>

따라서 더블린 재판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집단학살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몇몇 사실들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

<sup>1</sup> Peoples Tribunal on Sri Lanka, Trinity College, Dublin, Ireland 14-16 January 2010. Rome: Permanent people's Tribunal, [2010].

<sup>2</sup> Ibid, P18-19.

- 정부의 묵인 하에 스리랑카 군대와 무장단체가 타밀 공동체의 핵심적인 사람들(기자, 의사, 정치인)을 “제거”하는 동향이 있다. 이는 렘킨(Lemkin)이 말한 바와 같이 “집단이 삶을 지속하는 그 근간”(이 경우에는, 타밀 집단)을 파괴하기 위한 행위이다; 그리고

- IDP 캠프에 있는 타밀 사람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 계속된 총격과 조직적 강간, 강제적 추방 또는 살인; 타밀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파괴; 그리고 타밀 사람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다른 기본적인 필수품의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더블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위와 같이 나열된 사실이 현재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기소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러나 본 법정은 집단학살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sup>3</sup>

3년 동안 증거를 수집한 이후, 스리랑카에서 엘람 타밀(Eelam Tamil) 겪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이 계속되자, 스리랑카의 평화를 위한 아일랜드 포럼(the Irish Forum for Peace in Sri Lanka)과 브레멘 국제인권클럽(the Internationaler Menschenrechtsverein Bremen)은 집단학살에 대한 기소와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집단학살에 대한 다른 공조 국가의 범행을 다루기 위해, 스리랑카에 대한 두 번째 PPT 재판을 요청했다.

---

<sup>3</sup> Ibid, P. 19.

### 3. 기소

스리랑카의 평화를 위한 아일랜드 포럼(the Irish Forum for Peace in Sri Lanka)과 브레멘 국제인권클럽(the Internationaler Menschenrechtsverein Bremen)은 브레멘 법정에 아래 내용을 기소하였다.<sup>4</sup>

**“1. 스리랑카 섬의 북부와 동부에서는 타밀 사람들에 대한 집단학살이 자행되어 오고 있다. 학살의 과정은 단계별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2. 스리랑카 정부와 군은 타밀에 대한 집단학살의 죄가 있다.”**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자행된 다면적 공격은 타밀을 섬에서 제거하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섬의 북부와 동부에 거주하는 타밀의 민족적 생활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스리랑카 정부의 대량 학살은 싱할라(Sinhala)가 타밀의 영토를 통치하는 것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3. 영국 정부는 타밀 집단학살에 공조한 죄가 있다.”**

식민통치 기간 동안 영국은 인도와 인근 해상로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스리랑카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하고 이 섬을 실론(Ceylon)이라 칭했다. 타밀이 살고 있던 섬의 동부에 위치한 트링코말리(Trincomalee, 넬슨 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항구라고까지 했음) 항구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깊은 수심을 갖고 있었다. 지리적인 근접성 때문에, 실론과 인도는 서로 매우 밀접한 문화적, 정치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인도와 실론의 역사적 인연은 실론섬에 거주하던 타밀과 남인도 지역의 타밀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러한 관계는 실론섬을 전략적 요충지로 개발시키려는 영국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

---

<sup>4</sup> 더블린 재판은 인종학살과 국제적 수준의 공조 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한다. The People’s Tribunal on Sri Lanka – Session II, Bremen, Irish Forum for Peace in Sri Lanka and Internationaler Menschenrechtsverein, Bremen, October 2013 (Text quoted directly from this Accusation).

위와 같은 맥락에서 영국은 이 군사적 요충지가 가진 지리적 경계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과 실론 섬의 사람을 구분 짓는 독특한 정체성과 함께 통합된 구조적 실체를 만들어냄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섬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였다. 싱할라는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민족'이었다. 1833년, 영국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전통적인 타밀 영토를 싱할라 지역과 병합함으로써 일원화된 구조를 만들었다. 이로써 싱할라는 일원화된 국가 체제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곧이어 영국은 역사기록학과 고고학, 그리고 인류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인도를 '침략자'로, 타밀을 '침략자의 후손'으로 규정하면서, '싱할라 불교 아리아인'(Sinhala Buddhist Aryan)이라는 새로운 국민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바다 건너편의 인도 사람들을 잔혹하게 취급한 것과는 극히 대조적으로, 영국은 대중의 의식 속에 싱할라 정체성을 주입하기 위해 광범위한 인구조사와 함께 보통선거권을 부여했다. 타밀은 한 민족으로서 집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를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영국은 국가권력을 싱할라 엘리트에게 이전했다. 이로써 타밀은 자신들을 '외부 위협'으로 바라보던 싱할라 주도 신생정부의 손에 넘겨졌다.

일원화된 국가 구조와 싱할라 불교도의 맹목적 애국심은 섬의 북부와 동부에 있던 타밀을 집단학살하는 사건의 기초를 제공한 두 가지 근본적 요소가 되었다. 자신들의 전략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영국은 경솔하게도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집단학살의 가능성을 무시해 버렸고, 싱할라에게는 집단학살을 저지르는 동기를 만들어 주었다.

#### “4. 미국은 타밀 집단학살에 공조한 죄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이 지역에서 영국을 대신하는 지배적 힘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은 섬의 일원화된 구조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활동을 유지 발전시켰다. 그러나 타밀에 대한 집단학살 과정은 타밀이 정치적으로 민족 자결권을 요구하며 저항하던 70~80년대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개입은 더욱 심해졌다. 일원화된 국가 체제가 약화되자, 미국은 군사적 정치적 지원과 함께 섬 내 대량 학살을 계속하는데 쓰일만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량 학살에 더욱 적극적으로 공조하기 시작했다. 2002년 2월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지만, 미국은 영국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싱할라 정부와 사실상의 타밀 자치 행정부 사이의 권력 균형을 깨기 위해 계산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결국 이를 통해 협상 과정을 망쳐버리는데 성공했다. 협상이 잘 되었다면 학살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의 조치들은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타밀의 저항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집단학살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지금까지 스리랑카 정부와 그들의 정치적 후견인들의 행동을 멈추게 할 만한 능력을 보여준 타밀의 정치적, 물리적 힘이 제거되면서, 집단학살 과정은 다시 시작되었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주요 가해자인 스리랑카 정부의 죄상에 공조한 책임이 있으며, 타밀의 민족적 기반을 파괴하려던 스리랑카 정부의 의도를 공유한 사실이 있다. 미국의 동기는 자신들의 전지구적 군사력 투사(military power projection)에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 이 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 “5. 인도 정부는 타밀 집단학살에 공조한 죄가 있다.”

1980년대 후반, 인도는 전략적 자산으로써의 타밀을 지배하기 위해 LTTE와 전쟁을 치루면서, 1만2천명의 타밀인을 죽음으로 몰았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는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미국의 패러다임 아래에서 미국의 대 스리랑카 전략 정책을 보조하면서 타밀 집단학살에 공조했다.

## 4. 변호

피고 국가 4개국이 PPT의 초대를 무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조사위원을 통하여 이 건에 대해 피고들이 가진 각각의 입장을 제시하도록 했다.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들 내용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었다.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의 국제 평화학(International Peace Studies) 조교수인 조사위원 이안 어택(Iain Atack)박사는 피고를 변호하는 관점을 취하여 이러한 피고 각각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4.1. - 스리랑카의 입장:

1. 전쟁은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로부터 북부와 동부를 해방하기 위함이었다. (국방부 웹사이트)
2. 어떠한 시민 학살도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고, 부수적인 피해에 불과했다. (교훈과 화해 위원회, LLRC, 보고서)
3. LTTE가 축출된 지역에서 재정착(resettlement)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 2013 UN 인권 위원회 전에 스리랑카 대 대통령의 특사에 의해서 언급됨)
4. 정부는 북부와 동부 지역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는 결국 타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5. 국내적으로도 모든 의문점에 대한 조사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제적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 4.2. 인도의 입장:

(2012년 8월 4일, 외무부 장관인 크리슈나(S. M. Krishna)가 국회에서 한 성명을 요약함)

1. LTTE는 인도 법으로 금지된 조직이다.

2. 스리랑카 정부는 전쟁의 최종 국면에서 자행된 폭력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해야만 한다.
3. 동-북 지방 위원회에 관한 13번째 헌법 개정을 충실한 이행해야 한다. 모든 해결 방안은 분리되지 않은 단일 스리랑카를 전제로 해야만 한다.

#### 4.3. 영국의 입장:

(영국 입장에 대한 이전 성명들을 요약함: 2013년 11월, 스리랑카에서 영국 정부인 영국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 그리고 영연방 정상회의 시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의 성명)

1. LTTE는 테러리스트 조직이다.
2. 스리랑카 정부는 2014년 3월까지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UN의 주도하에서)
3. 모든 해결 방안은 분리되지 않은 단일 스리랑카를 전제로 해야만 한다.

#### 4.4. 미국의 입장:

(국무부 성명, 2009년 국회 국무부 보고서 요약)

1. LTTE는 테러리스트 조직이다. 우리는 종전을 환영한다.
2. 2009년 전쟁의 최종 국면에서 자행된 폭력에 대한 독립적 내부 조사가 있어야만 한다.
3. LLRC의 권고가 시행되어야 한다.
4. 모든 해결 방안은 분리되지 않은 단일 스리랑카를 전제로 해야만 한다.

## 5. 판결

### 5.1) 집단학살의 혐의

#### 5.1.1.) 왜 집단학살인가?

이 재판의 주요 질문중 하나는 이 사건(그리고 전체과정의 많은 희생자들)과 관련된 기관들이 왜 2010년 1월, 더블린에서 첫 번째로 열린 민중재판 이후, 또다시 두 번째 민중재판을 요청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2010년 더블린 재판은 스리랑카 정부가 타밀에게 저지른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집단학살로 고통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희생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입증되더라도 국제적 국내적 기구들의 향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역사적 상황에서와 같이 공통적으로,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사회적 행위들이 단지 개인들을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집단학살은 집단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이다. 집단을 집단의 경험과 역사로부터 분리시켜 내는, 즉 그 집단의 고유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빼앗아 버리려는 시도이다.

집단학살이 가진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시계열적 구도를 따른다. 먼저 그 중심적 목적은 특정집단에 의해 구체화된 삶의 방식을 파괴함으로써 집단학살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남은 부분들 속에서 사회적 관계들을 재조직화한다. 이 시계열적 구도의 마지막은 희생자들의 기억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타밀이 박해받고, 고통받고, 단지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이 말살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정체성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학살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어떤 시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작업이다. 이는 또한 모든 민족이 가진 자결권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 5.1.2.) 사회적 과정으로서 집단학살

집단학살을 다른 살인이나 대량살상 행위와 달리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사회적 과정 또는 행위로 보는 이유는 바로 그 조직화, 훈련, 행동, 합법화 그리고 합의 과정 때문이다. 사회적 행위들은 지속적인 것이며, 끊임없이 구성되고 있다.

집단학살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래피드 렘킨(Rapid Lemkin)은 집단학살의 본질은 “피억압자의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고 억압자의 민족 정체성을 주입하는데” 있다고 말한다<sup>5</sup>

우리가 집단학살을 과정으로 분석한다면, 그 자체로는 집단학살 행위라고 할 수 없을 지라도 집단학살이 실행되도록 하는 조건을 형성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스리랑카 단일국가에 대한 이방인으로서 타밀을 규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수많은 학살, 차별의 과정, 무장충돌의 시기, 궁극적으로는 전면 제거계획의 실행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 결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법정은 “집단학살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들”의 구조적 사회적 형성은 1833년 영국의 행위로 부터 시작한다는 증거를 접수하고 이를 청취했다. 먼저 영국은 전통적인 타밀과 싱할라의 영토를 서로 뒤섞으면서 일원화된 구조를 창조해 냈다. 이 과정 속에서 인도는 침략자로 제시되고 타밀족은 “침략자의 후손들”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영국은 싱할라 사람들 가운데 “아리안 싱할라 불교도”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료편집, 고고학 및 인류학적 구성작업을 진행하면서 사회를 조직적으로 설계해 나갔다.<sup>6</sup>

각각의 과정은 계보를 가지고 있다. 집단학살과 같은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어떤 결정적 순간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다. 스리랑카의 경우에도 사회적 과정 가운데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다. 그러나 단일 국가를 만들려는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들은 1956년 정말로 중대한 전기를 맞이했다. 타밀의 비폭력 저항에 대한 대응으로 타밀 대학살이 발생한 이후, 싱할라어가 유일한 공식 언어로 결정된 것이다.

1958년, 타밀어 특별 규정에 대한 타협에 정부가 동의하자 또다시 조직적인 학살행위가 발생했다.

1961년, 공식 언어정책에 저항하면서 북부-동부지역의 타밀이 광범위한 사티아그라하(간디에게 영감을 얻은 비폭력 직접저항) 운동을 펼치자, 북부-동부에 싱할라 군대가 배치되었다.

1971년, 타밀학생들의 고등 교육기관 입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교육표준화 정책이 만들어졌다.

<sup>5</sup> Raphael Lemkin, Axis Rule in Occupied Europ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ashington DC, 1944, p.79.

<sup>6</sup> 예를 들어, 실론의 테넨트(J.E. Tennent) 식민관할총독(1845-1850)은 토착민과 침략자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역사적 사실의 해석을 주도면밀하게 조작하였다. 타밀을 '약탈자 혹은 침입자', 실론 내에서 유일하게 '가난하고 못난' 민족으로 묘사한 반면, 싱할라는 '한차원 높은, 문명화된,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을 갈망하는 민족으로 묘사했다. Ceylon: An Account of the Island - Physical, Historical and Topographical. (Vol. 1, pp. 394-396). London: Longman, Green, Longman and Roberts, 1859.)

1972년, 싱할라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규정하는 법률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불교에 헌법의 '최고 권위'를 부여한 최초의 공화주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1977년, 자치주 설립을 요구하는 온건한 타밀지도부에 의해 바두코다이 결의안(the Vaddukodai Resolution)이 통과되자 다시 한 번 타밀에 대한 조직적인 대학살이 이루어졌다.

1978년, 헌법은 계속해서 공식 언어로서 싱할라어에 대한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 시기로부터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1981년 자프나(Jaffna) 공공도서관 방화, 1983년 3천 명 이상의 타밀이 살해된 조직적 학살(검은 7월로 알려진)이 발생했다.

인종대학살 기간 동안 남부지역에 살고 있던 수천 명의 타밀이 살해당한 사건과 더불어, 북부와 동부 지역에 살고 있던 엘람 타밀에 대한 조직적 학살에 대해서도 300페이지가 넘게 상세히 다루고 있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예를 들어, 1983년 7월(티루넬벨리, Thirunelveli 대학살)부터 1987년 5월(알바이 사원, Alvai Temple 대학살)까지 정부군이 개입한 44개가 넘는 대학살에서 최소 2,109명이 살해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90년 5월(이스턴 대학, Eastern University 대학살)부터 1995년 5월(나게르코빌, Nagarkovil 대학살)까지 6년 동안 정부군이 저지른 47개의 대학살에서 2,231명이 살해되었다. 또한 2~3일 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84년 12월 15일 발생한 코끼라이-코꾸소두바이(Kokkilai-Kokkuthoduvai) 대학살에서 131명이 살해되었고, 1990년 5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일어난 이스턴 대학 대학살에서는 226명이 살해되었다. 또한 1995년 7월 9일 나발리(Navali)의 성 베드로 교회 대학살에서도 155명이 살해되었다).<sup>7</sup>

목격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세심한 증거 문서는 이 대학살의 만행이 집단정체성을 바탕으로 엘람 타밀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가해자에 대한 정부의 면책은 이 학살이 폭동을 잠재운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계산된 정부정책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 타밀 마을을 없애고, 비무장한 민간인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까지 학살했던 이 작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정부군은 방어벽이 설치된 곳에 버스를 멈추게 한 후 타밀 사람들만을 골라내어 총격을 가했고, 국내실향민(IDP)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을 납치 했다. 이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타밀을 희생시켰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집행(예를 들어, 트링코말리의 학생 5명과 무터(Muttur)의 액션 콘트라 파임(Action Contre la Faim)의 구호 담당 직원 17명의 죽음)과 선별적 암살(저명한 언론인, 국회의원, 성직자, 그리고 시민사회 지도자가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살해됨)은 이미 동부에서 정부군의 대규모 군사공세가 시작되기 전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없었다. 동부 낫피디무나이(Natpiddymunai, 1990년 9월)와 자프나의 첼마니(Chemmani, 1998년 7월) 그리고 북부 미루수빌(Mirusuvi, 2000년 12월)에서 발견된 수백 명의 무덤들은 이 잔혹한

<sup>7</sup> NESOHR, . "Lest We Forget: Massacres of Tamils, 1956-2001." The North-East Secretariat On Human Rights. 14 Aug 2007. retrieved from.[http://nesohr.org/wp-content/uploads/HumanRightsReports/Lest\\_We\\_Forget.pdf](http://nesohr.org/wp-content/uploads/HumanRightsReports/Lest_We_Forget.pdf)

집단학살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이다<sup>8</sup>

2010년 1월 더블린 법정에 제출된 상세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은 이 잔악한 행위들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과, 이것이 2006년에 시작된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더 심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충격적이게도, 정부군은 2008년 12월 이후 전투지역에서 영구 및 임시로 운영되는 병원에 대해서도 30회 이상의 공격을 자행했다. 이 내용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의해서 문서화되었다<sup>9</sup>

이 집단학살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절정에 달했고, 물리바이칼(Mullivaikkal) 학살로 인해 희생된 사망자 수만해도 146,679명이다. 그 외에도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7만 명 이상에 달한다. (몇몇의 자료는 이 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학살 목록에 등장하는 수치는 심지어 개별적으로 살해되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살해된 시민사회 지도자, 언론인, 정당대표, 민중의 정치운동가와 일반 시민들의 사망자 수를 정리해 포함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목록의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물리바이칼 군사작전 이후인 2009년 5월 이후부터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는 스리랑카의 북부와 동부에서 계속해서 자행된 타밀 집단학살에 대한 혐의 아래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 5.1.3.) 사회 과정의 역사적 이해

이 재판 기간 동안 전 세계인들과 함께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를 추모하는 일은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 준다. 그는 이 법정 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독특한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델라와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처럼, 엘람 타밀의 국가 그룹은 간디로부터 영감을 받은 비폭력 운동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 비폭력 정치활동은 독립 이후 2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대중정치와 의회의 비폭력 시위가 스리랑카 정부의 의해 고조된 폭력과 조우했을 때, 타밀의 청년그룹은 자체적으로 무장 게릴라 그룹을 조직하였다. 이 무장운동의 지배 세력인 LTTE는 1983년 검은 7월 타밀 학살 이후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비록 용납될 수 없는 폭력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LTTE를 "테러조직"만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테러리즘"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문의 서문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폭력은 "독재와 억압에 맞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평화 프로세스 동안 "미국과 영국의 강압"<sup>10</sup>에 의해 LTTE를 테러단체로 규정한 EU의 결정은 협상 프로세스의

<sup>8</sup> NESOHR, . "Lest We Forget: Volume II" The North-East Secretariat On Human Rights. 25 Aug 2008. retrieved from <[http://www.nesohr.org/files/Lest\\_We\\_Forget-II.pdf](http://www.nesohr.org/files/Lest_We_Forget-II.pdf)>

<sup>9</sup> HRW, . "Sri Lanka: Repeated Shelling of Hospitals Evidence of War Crimes." Human Rights Watch, 08 May 2009. Retrieved from <<http://www.hrw.org/news/2009/05/08/sri-lanka-repeated-shelling-hospitals-evidence-war-crimes>>

<sup>10</sup> Statement by the head of the Sri Lanka Monitoring Mission. Major General Ulf Henricsson, 23 March 2007, Französische Friedrichstadtkirche, Berlin. retrieved from <[http://www.friedenfuersrilanka.d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9&Itemid=27](http://www.friedenfuersrilanka.d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9&Itemid=27)>

파국과 인종학살의 재발 과정을 촉진시켰다.

넬슨 만델라와 아프리카민족회의는 테러리즘으로 규정당하기를 거부하고 정부에 의해 억압되었던 집단적 권리를 향해 끊임없이 저항했다. 그들의 활동은 이전에는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었던 활동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정치적인 독립단체로 변화되고, 해방세력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5.1.4) 집단학살 범죄의 법적 요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집단학살은 여러 단계를 포함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정은 이를 염두에 두고 처음 두 가지 기소에 대한 공동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1. 스리랑카 섬의 북부와 동부에서는 타밀 사람들에 대한 집단학살이 자행되어 오고 있다. 학살의 과정은 단계별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2. 스리랑카 정부와 군은 타밀에 대한 집단학살의 죄가 있다.

UN의 집단학살 협약(UN Genocide Convention)에 따르면, 집단 학살은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의미한다. 즉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집단구성원에게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전부 또는 일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취하는 것, 집단의 아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그런 행위들이다."

##### 5.1.4.1) 행위들

우리는 의심할 나위 없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의 행동들은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본다.

##### (a) 집단 구성원에 대한 살해

2010년 1월 더블린 1차 재판 동안, 엘람 타밀에 대한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행된 살인과 학살에 대한 상당한 양의 증거들이 제출되었다. 브레멘 법정은 1956년 6월에서부터 2008년 6월까지 149번의 학살이 자행되었고 최소 10,617명이 살해되었다는 자료들을 조사했다. 1986년 초까지 이미 스리랑카의 북동부에서 "스리랑카군이 한 달에 평균 233명 또는 하루에 7명의 타밀민간인을 죽였다"<sup>11</sup>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살인 양태의 점차적 확대 과정은 전쟁의 마지막 단계를 주로 다루었던 더블린 법정에 제출된 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문서는 "2009년 1월 말 매일 33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그 수가 4월에 들어서서는 116명으로 증가했음"<sup>12</sup>을 보여 준다. 스리랑카군의 맹

<sup>11</sup> 이 수치는 동-북 주민 위원회의 기록을 기반으로 자프나의 영자신문인 새터데이 리뷰(Saturday Review) 1986년 1월 17일자에 최초로 실렸다. <<http://www.uthr.org/SpecialReports/spreport5.htm>>

<sup>12</sup> Ravi Nessman, "UN says 6,500 Tamil civilians killed in Sri Lanka." Star, 24 April 2009 [Associated Press], retrieved from <[http://www.thestar.com/news/world/2009/04/24/un\\_says\\_6500\\_tamil\\_civilians\\_killed\\_in\\_sri\\_lanka.html](http://www.thestar.com/news/world/2009/04/24/un_says_6500_tamil_civilians_killed_in_sri_lanka.html)>

공격이 있던 마지막 몇 주 동안, UN에 의하면 2009년 "5월 19일까지 매일 평균 1,000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을 정도로 희생자 수가 급증했다."<sup>13</sup>

위에 언급된 학살 이외에도, 무차별적 폭격, 대량학살을 위해 이른바 "발포금지구역"(No Fire Zone)에 민간인들을 몰아넣는 전술, 그리고 외부 세계에 스리랑카의 집단학살 프로젝트를 알릴 가능성이 있는 타밀 시민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은 국가가 얼마나 계산된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선별적 암살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Fr. George Jeyarajasingham (13 December 1984), Fr. Mary Bastion (6 January 1985), Kumar Ponnambalam (5 January 2000), Chandranehru Ariyanayagam (7 February 2005), Darmaratnam Sivaram (28 April 2005), Joseph Parajasingam (24 December 2005), Vanniasingam Vigneswaran (7 April 2006), Sinnathamby Sivamaharaja (20 August 2006), Nadaraja Raviraj (10 November 2006), Prof. Sivasubramaniam Raveendranath ( 15 December 2006), K Sivanesan (6 March 2008), Fr. M X Karunaratnam (20 April 2008), Fr. Mariampillai Sarathjeevan (18 May 2009).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 되었다.

잔혹 행위를 보도하고 기록할 수 있는 언론인의 살해에 대한 조사에서도 위에 언급한 암살 사건과 유사한 동기를 밝혀낼 수 있다. 2004년 4월과 2010년 10월 사이 무장 병력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불법무장 단체에 의해 살해된 39명의 저널리스트와 언론인들 중 적어도 35명이 타밀 사람이었다.(89.7%).<sup>14</sup>

#### (b) 집단 구성원에 야기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국제형사재판소에 따르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중략...특히 고문행위와 비인간적 또는 모멸적 취급,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폭행을 동반한 심문, 살해위협 그리고 신체에 손상과 상처를 야기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피해는 영구적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sup>15</sup>

집단학살 협약 초안이 작성되었을 때의 세상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남성 우월적이었고 강간과 성폭력은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로 여겨지는 행위가 아니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협약은 강간을 고문의 유형으로 인식하고 성폭력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받아 들였다. 그리고 1998년에 이르러서야 강간을 집단학살의 주요 행위 중 하나로 선언했다.<sup>16</sup> 아래 스리랑카 타밀의 경우에서처럼 특정 집단이 국가의 묵인 아래 50년 이상 성폭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해 왔다는 것은 분명 집단학살 협약의 위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sup>13</sup> B. Farmer ,, "Sri Lankan army accused of massacring 20,000 Tamil civilians in final assault.." Telegraph, 29 May 2009, retrieved from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srilanka/5405085/Sri-Lankan-army-accused-ofmassacring-20000-Tamil-civilians-in-final-assault.html>>

<sup>14</sup> Journalists for Democracy in Sri Lanka. Media workers killed in Sri Lanka (2004 - 2010), June 2012. retrieved from <<http://www.jdslanka.org/index.php/killed-media-workers>>

<sup>15</sup>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Brdjamin (Trial Chamber), 1 September 2004, para 690; Stacic, 31 July 2003, para 516.

<sup>16</sup>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Akayesu, 2 September 1998, para 598.

법정은 엘람 타밀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던 스리랑카의 정책에 주목했다.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동반한 대규모 강제이주는 30년이 넘는 전체 전쟁 기간 동안 동-북 지역의 지속적인 특징이었다. 강제적 빈곤, 식량 및 약품 제재 등 생계에 대한 제한과 기본적인 인도적 필요에 대한 제약은 이 지역들에서 벌어 진 끔찍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더블린과 브레멘 법정에서 재판부는 엘람 타밀 여성들에 행해진 성폭력에 대한 강렬한 증거들을 주의 깊게 들었다. 이들 폭력은 희생자들에게 거대하고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야기했다. 이하의 사례를 포함한 다수의 사례에서 희생자들은 군과 경찰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후 살해되었다: Krishanti Kumaraswamy (7 August 1996), Arumaithurai Tharmaletchumi (11 February 1996), Murugesapillai Koneswary (17 May 1997), Ida Carmelitta (12 June 1999), Sarathambal Saravanbavananthakurukal (28 December 1999), Wijikala Nanthan (19 March 2001), Thambipillai Thanalakshmi (7 July 2001), Ilayathamby Tharsini (16 December 2005), Mary Madeleine (8 June 2006), Premini Thanuskodi (30 June 2006), Isaipriya alais Shoba (May 2009) 그리고 Santhakumari Krishnapillai (10 July 2011)

2013년 휴먼라이츠워치에 의해 발행된 보고서는 2006-2012년 사이에 스리랑카 군경에 의해 자행된 강간과 성폭력에 대해서 상세히 폭로하고 있다. 보고서는 75개의 강간 사례-31개는 남성, 41개는 여성, 3개는 18세 이하의 소년-를 기록하고 있다.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리랑카 군경이 저지른 성폭력은 이들이 저지른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계속된 면책을 배경으로 했다...중략...스리랑카 대법원은 자프나의 27세 여성 요갈링암 비지타(Yogalingam Vijitha)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한 보상을 명령했다. 그녀가 콜롬보 인근 네곰보(Negombo) 경찰서에서 2000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붙들려 있는 동안 경찰관들은 플렌테인 나무 꽃 등을 활용하여 그녀를 고문하고 강간했다. 그러나 어떤 경찰관들도 기소되지 않았다."

1977년에 고문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이 보낸 서신에서 기록되어 있는 많은 강간 사건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해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1997년 3월 17일 바티칼로아(Batticaloa)지역의 마이람파베리(Mayilampaveli) 정착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근 부대의 군인 네 명에게 강간당한 벨란 라삼마(Velan Rasamma)와 그녀의 여동생인 벨란 바산타(Velan Vasantha)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군인들은 자매의 집에 강제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에라부르(Eravur)의 지역 경찰 및 합동작전 사령관에게 신고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소를 거부했다. 바티칼로아에서 발생한 무루게수필라이 코네스와리(Murugesupillai Koneswary)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찰들은 그녀의 집에서 목재를 훔쳐갔고, 이를 고발한 후에 그녀는 지역 경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1997년 5월 17일에는 용의자로 고발된 경찰들이 그녀의 집에 들어와 그녀를 강간하고, 그녀의 성기에서 수류탄을 폭발시켰다. 그녀는 즉사했다. 이 범죄로 인해 어떤 용의자도 기소되지 않았다.<sup>17</sup>

정부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상해 또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sup>17</sup> Human Rights Watch, "We Will Teach You a Lesson" : Sexual violence against Tamils by Sri Lankan security forces, (2013). . (p.18-19) retrieved from <[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srilanka0213webwcover\\_0.pdf](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srilanka0213webwcover_0.pdf)>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마지막 공습 기간 동안 일명 ‘발포금지구역’에서 스리랑카 군의 포격으로 인해 최대 3만 명의 타밀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들 언론 중 하나는 한 구호활동가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곳과 북부 다른 통행금지구역 난민캠프의 조건은 그가 지난 20년간 전 세계의 전쟁터에서 난민들을 도우며 목격한 것 중 최악이었다는 것이었다.”<sup>18</sup>

재판부는 북동부에서의 대규모 토지 압류와 수많은 난민 발생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스리랑카 정부가 미리 계획된 반군진압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견을 가지게 되었다. 전쟁 기간 중에 이루어진 강제이주는 엘람 타밀의 정상적인 삶을 앗아갔고, 깊은 심리적 상흔을 남겼다. 예를 들면, 2000년 12월을 기준으로 자프나에서만 전체 인구의 최소한 40.2%가 국내실향민이었다.<sup>19</sup> 하지만 종전 후 3년이 지난 2012년 10월까지도 자신의 땅을 잃어버린 많은 국내실향민들이 자프나의 42개 나머지 IDP 캠프 또는 11개의 인접 난민 캠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sup>20</sup>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재판부는 또한 지속적인 강제이주 그리고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한 끝없는 충격은 엘람 타밀의 젊은 세대들에게 파괴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택의 상실, 낯선 환경, 가족 일상의 파괴, 부모와의 이별, 친숙한 이웃과 환경과 학교는 물론 친구와의 이별, 장난감과 아끼던 보물의 분실, 비좁고 낯선 주거 시설 등은 모두 아동들에게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스리랑카 북동부에서 거의 20년에 걸쳐 이어져 온 내전 가운데, 아동들은 폭격, 헬기를 통한 무차별 난사, 교통 차단, 수색 작전, 죽음, 부상, 파괴, 대량 체포, 감금, 사격, 수류탄 폭발, 지뢰 등의 경험들로부터 비롯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스리랑카 동부 주(Eastern Province)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소수 민족 타밀 아동들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전쟁 트라우마 및 심리적 후유증에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sup>21</sup>

1986년부터 스리랑카에서 일하고 있는 국경없는 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를 비롯한 많은 인도적 기구들도 무차별적 군사 공격으로 인해 엘람 타밀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를 보고하고 있다. “상당한 수의 응답자들이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 많은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에 대한 폭격, 비행기의 폭탄 투하, 박격포 공격, 십자포화 공격, 고문을 목격했으며, 자신의 집에서 부상당하고 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20명(12%)은 공격을 받았고 28명(18%)은 체포되거나 납치되었으며 27명(17%)은 인질로 잡히거나 구금되었고, 28명(17%)은 경찰이나 군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17명(11%)은 고문을 받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재산을 잃었고(157명, 97%) 기아를 경험했다(152명, 94%). 88%(142명)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갈등과 폭력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망으로 이어졌으며 응답자 중 12명(7%)은 배우자를, 14명(9%)은 자녀를, 20명(12%)은 부모를,

<sup>18</sup> D. Nelson, “Up to 30,000 ‘disabled’ by Sri Lankan shells.” The Telegraph, 24 May 2009., retrieved from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srilanka/5378047/Up-to-30000-disabled-by-Sri-Lankan-shells.html>>

<sup>19</sup> N. Sivarajah, Nutrition status of women and children in Jaffna. Tamil Times, XX (5), May 2001, p.21

<sup>20</sup> “Sri Lanka: a hidden displacement crisis”.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31 October 31 2012, p.13. retrieved from <[http://www.internal-displacement.org/8025708F004BE3B1/\(httpInfoFiles\)/FCD38BA17999B30CC1257B1D002D88C7/\\$file/Sri Lanka - A hidden displacement crisis - 31 October 2012.pdf](http://www.internal-displacement.org/8025708F004BE3B1/(httpInfoFiles)/FCD38BA17999B30CC1257B1D002D88C7/$file/Sri Lanka - A hidden displacement crisis - 31 October 2012.pdf)>

<sup>21</sup> D. Somasundaram, “Suicide bombers of Sri Lanka”,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8(3), 2010, p.416–441.

29명(18%)은 형제를, 16명(10%)은 조부모를 잃었다. 1/3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과 가까운 누군가를 잃었다. 일부는 그러한 사망을 직접 목격했다. 즉, 16명(10%)은 자신의 자녀 또는 보호하던 아동의 죽음을 목격했으며, 약 절반(78명, 48%)은 가족과 헤어졌다. 39명(24%)은 가족 중에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전쟁의 심리적 트라우마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들은 전쟁과 인권 유린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목격자였다. 그들은 직업의 기회와 자립의 희망을 상실했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sup>22</sup>

법정은 또한 2009년 이후 마지막 학살에서 살아남은 엘람 타밀 사람들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주목했다. 더블린과 브레멘에서 열린 두 차례의 재판 가운데 직접 목격자들의 상세한 증언들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이 생존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알게 해 주는 상당한 양의 문서 증거들이 재판소로 제출되었다. 그러한 영향력은 최근 북부 지방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자프나 실함민 거주자들의 PTSD(13%), 불안증(48.5%), 우울증(41.8%)증상의 유병률은 전쟁 후의 코소보와 아프카니스탄의 상황과 더욱 유사하다. 자프나 거주자들 중 약 68%는 최소 1회의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했으며 절반 이상이 2회 이상을 경험했다 (평균 2.76회). 트라우마 사건의 수와 정신적 이환률의 용량-반응 관계는 분명했다.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만성적 노출은 더 높은 수준의 PTSD, 불안증, 우울증 증상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또한 자신들의 터전을 잃어버린 실함민으로서의 상황과도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였다.”<sup>23</sup>

물론 가장 극심한 폭력은 대부분 무장 투쟁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보도들은 심지어 전쟁이 끝난 상황 가운데에도 이러한 폭력의 일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5.1.4.2) 특정 의도 (dolus specialis)

집단학살 협약은 보호 집단에 대한 전체적 또는 부분적 파괴의 “특정 의도”를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는: “특정 의도의 입증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다수의 정보와 정황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예를 들어 전반적인 맥락 상에서 동일한 집단에게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방식으로 범행이 저질러졌을 때, 잔악행위의 규모, 특정집단에 귀속된 피해자들이 체계적으로 표적화 되었을 때, 또는 파괴적이고 차별적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때이다.”<sup>24</sup>

실제로 집단학살의 의도는 “정황증거”<sup>25</sup>를 통해 충분히 입증가능하다. 예를 들어:

<sup>22</sup> Kaz de Jong, , Maureen Mulhern et al. "Psychological trauma of the civil war in Sri Lanka.". Doctors Without Borders, 27 Apr 2002. retrieved from <<http://www.doctorswithoutborders.org/publications/article.cfm?id=1397>>

<sup>23</sup> Farah Husain, Mark Anderson, Barbara Lopes Cardozo, Kristin Becknell et al. "Prevalence of war-related mental health conditions and association with displacement status in postwar Jaffna District, Sri Lanka",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06.5, August 2011: 522 - 531. retrieved from <<http://jama.jamanetwork.com/article.aspx?articleid=1104178&resultClick=3>>

<sup>24</sup> ICTY, Jelusic, "Appeals Judgment ", IT-95-10-A, 5 July 2001, para. 47. See also ICTR, Gatete, "Judgment", ICTR-2000-61-T, 31 March 2011, and para. 583.IT-95-10-A, 5 July 2001, para. 47.

<sup>25</sup> ICTR, Nyiramasuhuko et al., "Judgment", ICTR-98-42-T, 24 June 2011, para. 5732 (footnote omitted). See also ICTR, Bizimungu et al, "Judgment", ICTR-99-50-T, 30 September 2011, para. 1958; ICTR, Ndahimana, "Judgment", ICTR-01-68-T, 30 December 2011,



- (a) 잔혹 행위들의 일반성과 광범성;
- (b) 이러한 행위를 일으킨 전반적인 정치적 독트린;
- (c) 파괴(실제 또는 미수)의 규모;
- (d) 학살에 대한 조직적 계획;
- (e) 학살과 시신유기에 대한 조직적인 방식;
- (f) 행위의 차별성;
- (g) 피고인의 차별적 의도.<sup>26</sup>

스리랑카 정부의 반인륜적 범죄가 입증된 첫 번째 스리랑카 민중재판에서 그 잔혹행위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성질과 그 규모가 인정되었다.

물리바이칼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한 주요 행위자들이 그 준비과정과 실행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내어 놓은 공공 발언은 엘람 타밀족에 대한 집단학살의 의도를 입증한다. 이러한 의도는 스리랑카 독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스리랑카 정부의 고위급 민간인,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들을 통해 이미 너무나도 자주 드러나 왔다 -- 주로 신화적 역사적 왜곡을 조장하는 어휘가 사용된 편파적 발언과 학교 교과서, 미디어를 통해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sup>27</sup>

몇 가지 예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다:

“오늘날 당신들은 여기로 이끌려와 땅을 얻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신들은 바다위에 떠있는 유목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언젠가 이 나라 전체가 당신들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싱할라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전투는 파다비야(Padaviya) 초원위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섬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분열하려고 하는 자들은 당신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나라가 몇 년 동안 당신들을 잊을 수는 있어도 곧 당신들을 싱할라의 마지막 수호자로 우러러 볼 것입니다.”

**실론 독립 초기시절 초대총리 돈 스티븐 세나나야케(D.S. Senanayake) (1947 – 1952), 동쪽 타밀 지역에 정착한 싱할라 식민지주민에게 연설 중, 구나라트네 H. M.(H. M. Gunaratne)의 저서 독립국을 위하여에 인용: For a Sovereign State. Colombo: Sarvodaya Publications, 1988, p.201.**

“만약 동등함이 인정된다면, 이는 싱할라 민족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타밀 민족은 그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의지와 힘이란 특성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1955년 11월 13일, 시리마보 라트와테 디아스 반다라나이케 총리(SWRD Bandaranaike)의 연설, 1955년 11월 14일 실론 Daily News에 인용.**

---

para. 804.

<sup>26</sup> ICTY, Sikirica et al., "Judgment on Defence Motions to Acquit", IT-95-8-T, 3 September 2001, para. 46-61.

<sup>27</sup> 가해자가 해당 상황과 법적으로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여도, 이것이 집단학살 유죄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법정은 상기하였다. (ICTY, Goran Jelusic, AJ para. 49, citing Dusko Tadic, Appeal Judgment, Case No. IT-94-1-A, 15 July 1999, para. 269.)

“북부와 동부에 있는 연합당 지지자들과, 농장노동자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과 협력자들이 그들의 압력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를 마비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우리 정부를 지배하도록 둘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국민들의 적에 맞서 단결할 때입니다. 국가의 부름에 모두 응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시리마보 반다라나야케 총리(Sirimavo Bandaranayake)(1960 - 1965 & 1970 - 1977), 1961년 4월 26일 언어권리를 요구하는 타밀 연방당을 향한 연설, S. 포니아의 저서 사트야그라하와 실론 타밀족의 자유운동에 인용: S. Ponniah, Satyagraha and the Freedom Movement of the Tamils in Ceylon. Jaffna: Kaniah, 1963, p182-186.**

“저는 타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나 생각에 대하여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북쪽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수록 여기에 있는 싱할라 사람들이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타밀을 굶어죽게 만든다면 싱할라 사람들은 정말로 기뻐할 것입니다.”

- **주니우스 리차드 자야와르데네 대통령(J.R. Jayawardane) (1977 - 1988), Daily Telegraph, 1983년 7월 11일.**

“이 나라의 대부분이 싱할라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싱할라가 통치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 나라를 지배한 자도 이들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외의 소수 민족들은 싱할라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엘람을 북부와 동부에 주고 남부의 타밀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가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모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과반수의 사회가(싱할라족) 분열되어 있지 않다면 그 외의 소수민족들은 튼튼한 나무를 휘감는 넝쿨과 같이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 **딘기리 반다 위제통가 대통령(D.B. Wijetunga) (1993 - 1994), 1994년 2월 5일, 중부 주에서 선거유세 중, Sunday Observer에 인용, 1994년 2월 6일**

“저는 이 나라가 싱할라의 것이라 믿습니다만 우리들 사이엔 소수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마치 우리와 같은 민족인 것처럼 대우합니다... 이 나라의 75%, 다수인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에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것들을 요구해선 안 될 것입니다.”

- **폰세카 장군(Sarath Fonseka), 스리랑카 군 사령관(2005년 12월 - 2009년 7월), 2008년 9월 23일 National Post에 인용.**

“우리는 3년 전부터 소수민족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타밀, 무슬림, 버거, 말레이 등의 소수민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엔 오로지 두 가지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태어난 이 나라에 대한 어떠한 사랑도 없는 소수집단들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집단 규모가 더 작습니다.”

-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Mahinda Rajapaksa) (2005 - ), 2009년 5월 19일 스리랑카 의회 개원식 중, 2009년 5월 24일 The Sunday Leader에 인용.**

“테러리즘을 물리친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테러를 앞세운 정치적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법적 정치적 방법을 통해 테러를 앞세운 정치적 입장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정부

는 타밀민족동맹(Tamil National Alliance)에 대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바로 북부지역주 의회선거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타밀민족동맹이 북부지역주의 정치승리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리랑카 정부와 우리 국민들, 자주권에 대하여 도전하고자 한다면 타밀사회와 그들의 후손들은 난디카달(Nandikadaal) 저수지의 비극을 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sup>28</sup>

"

- **파탈리 참피카 라나와카(Patali Champika Ranawaka), 스리랑카 전력에너지부 장관, 민족재산당 대표, 타밀국민동맹의 선거승리 이후 발표한 성명서 중, 2013년 9월 23일.**

### 5.1.4.3) 집단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 집단으로 피해자의 특징을 구분할 때, 이 법정이 규정하는 이 건의 피해자는 민족 집단으로서의 엘람 타밀(Eelam Tamils)이다. 재판부는 (기소된 대로) "타밀 민족의 일부"로 피해자 집단을 설정할 것에 대해, 그리고 최종 판결대로 "민족 집단으로서의 엘람 타밀"에 대해 집단학살이 일어난 것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신중히 검토하였다.

국제범죄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모두 인정하는 집단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접근에 따르면, 보호 집단은 엘람 타밀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접근)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공통의 국민 정체성을 공유' 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그들 집단 구성원에 의해 인식된 것이기도 하다.(주관적 접근). 엘람 타밀은 섬의 북부와 동부의 타밀을 의미한다. 엘람 타밀 정체성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하고 강화된 무장 투쟁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장 투쟁은 타밀 사람들이 그들의 전통적 영토에 대한 자결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압의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섬 전역의 이름으로서 타밀족에 의해 일찍이 사용되었던 '엘람'이라는 단어는 점차 독립을 원하는 북동부의 사람들을 일컫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법정에 제출된 서류와 증언은 집단학살 과정의 피해자가 자결권을 주장하면서 집단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집단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전 UN 사무총장은 1994년 5월 24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량 학살이나 반인도적 집단학살 범죄는 전체로든 부분적이든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학살 협약은 집단정체성으로 인해 수많은 개인에게 저질러지는 범죄 또는 그 집단적 특성이나 역량으로 인해 저질러지는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학살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sup>29</sup>

같은 방식으로, 특별보고관은 그의 네 번째 보고서인 인류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법률 초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국민 집단은 여러 다른 민족 집단을 포함합니다...중략...따라서 국민의 개념은 소수 민족 집단과 일치하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한 공통의 소원, 이상, 목표, 열망에 의해 특징지어 집니다."<sup>30</sup>

<sup>28</sup> 난디카달 저수지는 2009년 5월 마지막 공습이 있었던 장소로 많은 민간인들과 LTTE군인들이 죽은 곳이다.

<sup>29</sup> S/1994/674, May 24, 1994, par.97.

<sup>30</sup> A/CN.4/398, March, 11th, 1986, par. 57.

이 건에서 특정 집단학살의 주요 대상이 엘람 타밀 집단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이들이 전체 타밀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밀이 가진 공통의 의지, 이상, 목표, 열망의 표출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전체 타밀 집단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집단학살이었다.

집단적 특성의 보호가 필요한 소수 민족으로서의 현실로 인해, 타밀 집단은 지배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 유형에 굴복하기를 요구하고 다른 집단성의 배제를 추구하는 헤게모니 권력에 의해 박해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 5.1.5) 계속된 집단학살 행위를 통한 집단학살의 연속성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본 법정은 집단학살을 과정으로서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집단학살은 계속된 집단학살의 행위 가운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일반적 행위는 집단 구성원을 죽이는 것이었다. (2 조.a UNGC) 전쟁이 끝난 후 스리랑카 군이 엘람 타밀 영토를 장악했을 때, 집단학살 협약 제2조에서 열거된 다른 몇몇 행위들도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 ***제2조.b와 관련하여, 집단 구성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결과적 증거, 즉 피해에 대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sup>31</sup> 그것들은 "고문 (...),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구타와 함께 심문"을 포함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수용소"에서 가해진 고문이 문서 II.b.32의 소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었다.<sup>32</sup>

이 건에서, 법정에 제시된 증거는 군과 경찰의 국가 행위자에 의해 자행되는 고문이 2009년 5월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주었다. 이 증거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기록과 증언들로 구성되었다. 이전에 전투에 가담했던 이들이나 실종자의 여성 인척들에 대한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기록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구금 상태의 여성과 남성 민간인들이 스리랑카 군경이 저지른 강간이나 다른 성폭력으로 고통 받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행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해외 스리랑카 난민 보호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는 2012년 12월 UN난민고등판무관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들 "성폭력 사건은 최근 보도된 타밀 남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분쟁 이후 기간에 자행된 다른 사건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sup>33</sup>

<sup>31</sup> ICTY, Branin Trial Judgment, 1 September 2004, para. 688; Stakic Trial Judgment, 13 July 2003, para. 514).

<sup>32</sup>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ment of 26 February 2007, para. 319).

<sup>33</sup> HRW, "We Will Teach You a Lesson", Human Rights Watch, February 2013. retrieved from <[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srilanka0213webwcover\\_0.pdf](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srilanka0213webwcover_0.pdf)>

같은 방식으로, 법정의 카메라 회기에 제출된 보고서는 사진 및 다른 법의학적 증거에 의해 2009년 이후 고문의 사례를 밝혀냈다.

증거로 제시된 모든 사실들은 이러한 행위들이 단발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해주었으며, 따라서 집단학살 행위를 정의하기 위해 국제 재판소들이 정해 놓은 요건을 충족시켰다.<sup>34</sup>

**제2조.c항과 관련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인 물리적 파괴를 야기하도록 의도적이고 계산적으로 집단적 삶의 조건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제II조. C항은 집단의 구성원을 즉시 죽이지 않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35</sup> 이런 방식은 "특별히 집단 구성원에 대해 겨우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식사만을 제공하는 행위, 고향으로부터 조직적 추방 행위, 최소 요건 이하로 의료 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ICTR은 "적합한 주거, 의류, 위생 및 의료의 부족이나 과도한 노동 또는 물리적 행사"가 II. C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sup>36</sup>

이와 유사하게, 국제형사재판소는 피해자를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추방하는 행위는 물리적 파괴를 야기하도록 계산적으로 집단적 삶의 조건에 악영향을 주는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혀 왔다.<sup>37</sup>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는 타밀 엘람이 소유한 사유지를 몰수했다. 2009년에 나온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정부는 타밀 영토의 군사적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막대한 영역을 군사보안기지(HSZ)로 선언하는 전략을 고안해냈다... HSZ(군사보안기지)는 본래 토지 소유자에게서 그들의 땅과 수자원을 몰수하였다. 이후 이들은 모든 민간의 통행을 통제하고, '무단 침입'하는 자는 구금이나 벌금, 심지어 총격을 가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주요한 땅과 해안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집을 빼앗기고 생활 수단을 잃게 되었다. 이는 이들을 강제로 실항민으로 만든 것과 다름없었다.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얹혀 지내는 많은 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는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타밀 지역주민들에게 생계 전망이나 생활비 면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타밀 인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 타밀 마을은 이들 마을과 유사한 폭력적 과정을 겪게 되었으며, 전체 타밀 공동체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게 되었다."<sup>38</sup>

법정은 전쟁이 끝난 이후 지난 4년 동안 엘람 타밀이 겪은 곤경은 이들의 상황이 건강, 식량, 사회 보장 면에서 계

<sup>34</sup> ICTY, Popovic et al. Trial Judgment, 10 June 2010 (henceforth Popovic et al., para. 829.)

<sup>35</sup> ICTR, Akayesu, (Trial Chamber, 2 September 1998, para. 505-506)

<sup>36</sup> ICTR, Kayishema and Ruzindana, (Trial Chamber), 21 May 1999, para. 115-116).

<sup>37</sup> ICTR, Akayesu, (Trial Chamber, 2 September 1998, para. 506)

<sup>38</sup> High Security Zones and the Right to Return and Restitution in Sri Lanka : A case study of Trincomalee District. Geneva, Switzerland : Centre on Housing Rights and Evictions, April 2009. 이러한 행위는 다음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Bhavani Fonseka and Mirak Raheem, Trincomalee High Security Zone and Special Economic Zone. Colombo :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September 2009

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징후라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섬 전체의 영양실조율이 29%인 반면, 북부와 동부의 '영양실조율'은 50%나 된다. 예를 들어 북부와 동부지역에 위치한 바티칼로아(Batticaloa)는 영양실조율이 53%이며 바니(Vanni, 4개 구역으로 구성된)의 영양실조율은 51%에 이른다... 이런 영양실조율은 북부와 동부에서 58.7%라는 충격적 빈곤율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2011년 6월, 이 지역 재정착민의 63%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up>39</sup>

엘람 타밀 지역의 군사화 강화, 식민화, 스리랑카 불교문화의 강제적 주입 등과 관련된 증거로 인해, 법정은 스리랑카 정부가 '물리적 파괴를 야기'하도록 의도적이고 계산적으로 타밀의 집단적 삶의 조건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sup>40</sup>

### **제2조.d.항과 관련하여, 집단 내 강제 산아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2013년 10월 발표된 최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베라빌(Veravil), 케란치(Keranchi), 발라이파두(Valaipaddu)라는 3개 마을에서 강압적 인구 조절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킬리노크키(Kilinochchi) 지역의 강제 피임 클리닉에서 사회건축가들(The Social Architects)라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는 "정부 보건 직원이 여성에게 피임기구인 자델(Jadelle)을 강압적으로 이식하도록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결론지었다."<sup>41</sup>

이런 강제불임 행위가 타밀 엘람 지역만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을이나 다른 스리랑카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회건축가들은 "공중 보건 직원이 향후 이 기구의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환자에게 정직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직원들이 기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피임기구의 이식 행위가 강압적 인구 조절 행위에 대한 대량 학살 협약의 요건에 맞는지는 다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필요시 의사가 언제든지 이식기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법정은 엘람 타밀에 대한 집단학살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은 아직 타밀 정체성의 총체적 파괴라는 그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물론 집단학살 계획의 실행은 2009년 5월 그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행위들로 미루어 보아, 스리랑카 정부는 여전히 엘람 타밀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집단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집단학살 전략은 변화되었고 다른 형태의 살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엘람 타밀 사람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면서, 전체 집단과 그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

<sup>39</sup> Alarm over malnutrition in North East." Tamil Net. 28 Oct 2013, retrieved from: <http://www.tamilnet.com/art.html?catid=13&artid=36777>.

<sup>40</sup> Kirinde, Chandani . "The war as it was." Sunday Times [Colombo] 05 June 2011, retrieved from: [http://sundaytimes.lk/110605/News/nws\\_20.html](http://sundaytimes.lk/110605/News/nws_20.html).

<sup>41</sup> The Social Architects, Above the law: violations of women's reproductive rights in Northern Sri Lanka, retrieved from: <http://groundviews.org/2013/10/11/above-the-law-violations-of-womens-reproductive-rights-in-northern-sri-lanka/>

제시된 증거의 타당성에 기초하여, 법정은 엘람 타밀에 집단학살 범죄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의 유죄를 판결하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그 집단학살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엘람 타밀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학살의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 5.2) 공조 혐의

법정은 엘람 타밀에 대한 집단학살 범죄가 스리랑카 정부와 그 군대에 의해 자행되었고 집단학살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판결했다. 법정은 이제 기소사실 중 다른 세 국가(영국, 미국, 인도)가 이 범죄에 대한 공조 혐의가 있다는 다음 기소혐의들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법정은 먼저 국제형법의 적용 아래 개인공조 행위 판결에 요구되는 요건들과 국가공조 행위 판결에 필요한 요건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면서, 국가공조라는 판결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들을 검토했다,

법정은 집단학살 협약의 제III조, 문단(e) “집단학살에서의 공조 행위”를 적용하여 국가공조 행위 판결 요건을 검토했다. 국제법에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판례는 2007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나왔다 (BH vs. Serbia-Montenegro). 이는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집단학살 협약 제III조 문단(e)의 관점에서 ‘공조’ 행위가 집단학살 범죄를 촉진하거나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을 포함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점에 법정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조’ 그 자체는 현재 국제적 책임과 관련된 법적 용어에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떤 국가가 타국가의 불법행위를 위해 제공한 ‘원조 또는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관련된 법을 구성하는 관습법에서 발견되는 범주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para.419)

이러한 연관성에서, [국제법 위원회]의 국가 책임에 관한 조항의 제16조에서 관습법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래와 같이 필요하다.

“제16조

*국제적 불법 행위에 대한 원조 또는 지원*

어떤 국가에 의해 자행된 국제적 불법 행위를 원조하거나 지원한 국가는 이 행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책임이 있다. 만일:

- a) 그 국가가 국제적 불법 행위 상황을 알면서도 원조 또는 지원을 한 경우;
- (b) 그 국가의 행동은 국제적으로 불법이라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법정은 개인을 기소하지 못한다. 또한 국제형법상 개인공조 책임의 판결을 위한 요건들도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 행위의 형태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판례를 참조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의 아카예수(Akayesu) 사건 판결에 주목한다. 이는 집단학살에 대한 공조 행위가 세 가지 특정 형태를 가진다고 말한다.

“-- 집단학살의 목적에 사용될 것을 공범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학살 자행에 사용된 무기나 도구, 또는 다른 수단을 제공한 공조 행위;

-- 집단학살의 가해자가 그것을 계획하거나 이루어가도록 의도적으로 돕거나 사주하는 공조 행위;

-- 집단학살 범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집단학살을 위한 수단을 선물, 약속, 협박, 권력이나 권위의 남용, 모략, 농간을 통해 제공했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집단학살을 부추긴 사람을 위해 선동하는 공조 행위(para. 536, 강조를 위한 기울임 표기는 추가된 것임).

이러한 사전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일반 사항은 바로 의도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BH vs. Serbia-Montenegro 사건에서, 집단학살의 경우 주요 가해자의 특정 의도(dolus specialis)를 그 국가가 인지하고 있었는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소한, 집단학살의 주요 가해자의 특정 의도를 알면서도 원조하거나 지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한 기관이나 개인이 집단학살의 가해자에게 원조나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는 집단학살의 공조 행위로 취급될 수 없다. 만약 이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조 행위에 대한 범주를 누락시켜도 무방하다.(para.421)

이렇게 사전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은 공조 혐의로 기소된 세 국가의 혐의 사실, 그리고 스리랑카 정부와 그 군대가 저지른 엘람 타밀 집단학살 범죄에서 정말로 오늘날까지 다른 어떤 국가들의 공조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 5.2.1) 영국의 공조 혐의

엘람 타밀에게 벌어진 집단학살 범죄에 영국정부가 공조하였다는 증거자료와 증언이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이는 타밀 엘람 해방호랑이(LTTE)가 조직되었던 1976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LTTE와 스리랑카 정부 간 수십 년 동안의 전쟁이 그 막바지에 이른 2009년 5월까지 영국의 공조 사실을 담고 있었다.

법정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영국정부는 위 아카예수(Akayesu)에 있었던 재판에서 제시한 집단학살 공조의 세 가지 형태 가운데 특별히 다음 두 가지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단을 제공한 공조 행위”, “집단학살의 가해자가 그것을 계획하거나 이루어가도록 의도적으로 돕거나 사주하는 공조 행위”이다.



1971년 4월 이전, 영국정부는 콜롬보 정부가 그 당시 실론에서 모든 시위자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영국이 스리랑카(그 당시 실론)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하원에서 직접적 반발이 일자, 당시 알렉 더글라스-홈(Alec Douglas-Home)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실론 정부는 (콜롬보와 JVP)간의 중재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한다. 그들은 가능하다면 그들 나라 안에 있는 이런 극단적 반란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다.”<sup>42</sup>

다음날 탐 달리엘(Tam Dalyell) 의원은 외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음과 같이 논박하였다. “실론 정부가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 우리가 헬리콥터를 수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왜 그것의 용도를 묵인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게다가 도대체 당신이 사용한 ‘제거’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아무리 극단적 반란자들이라 해도, 영국제 무기를 사용하여, 누군가를 제거하는 일을 지원하기 전에 충분한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같은 날,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영국 외무성 남아시아 국장은 실론 정부에 무기를 조달하는 영국정부의 전략적 이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밝혔다:

“영국의 상업적 이득과 정치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실론과 조력하고 공감하는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영향력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맥킨토쉬(Mackintosh, 주콜롬보 영국대사)가 조언한 바와 같이, 가능하다면 실론 정부가 필요로 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sup>43</sup>

역사적으로, 그리고 2009년 5월 타밀에 대한 전쟁의 최종국면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스리랑카에 대한 영국정부의 정책은 누가 콜롬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스리랑카의 내부적 사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오로지 영국의 전략적 그리고 상업적 이익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싱할라 반대파들이나 타밀 자결주의자들이건 간에 싱할라 단일정부에 위협을 미치는 어떤 집단도 “제거”한다는 콜롬보의 입장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정보를 포함해서 어떤 것도 영국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었다.

실론 독립기념일 전날, 공군참모총장, 영국참모총장, 해군참모부총장에 의해 만들어진 “일급비밀” 표시가 찍힌 문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물론 실론 정부는 자국 내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군대를 파견하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sup>44</sup>

<sup>42</sup> Hansard HC Deb 26 April 1971 vol 816 cc33-4.

<sup>43</sup> The British National Archive FCO 37/787

<sup>44</sup> Document prepared for the Cabinet 9 June 1947, marked ‘Top Secret’, reference CP (47) 179. <[http://www.tamilnet.com/img/publish/2013/12/1947\\_06\\_09-CAB:129:19.pdf](http://www.tamilnet.com/img/publish/2013/12/1947_06_09-CAB:129:19.pdf)>

실론 또는 스리랑카에 대한 영국의 최우선 전략 관심사는 영국 해군에게 매우 중요한 항구인 트링코말리에 대한 접근성 확보였다.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이 1956년 10월29일 수에즈 운하를 침공할 때 런던과 콜롬보는 실론에서 영국 해군을 철수시킬 것인가를 협상하였고, 영국 제독은 영연방대외협력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다.

“해군의 입장을 강조해서 말한다면, 이집트와의 전투 이후 연료급유, 탄약공급 및 적재 등을 위해 트링코말리 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증강병력을 태운 구축함을 가져와야 하는데 트링코말리에서 연료를 급유하지 않고 아덴(Aden)에 도착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45</sup>

1971년에도 외무장관과 국방해외정책위원회는 스리랑카가 영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인도양 선박 운항로 안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적대 세력이 실론에 근거지를 두지 못하도록 계속 노력해야만 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실론 정책 조성에 있어, 실론이 우리에게 적대적 성격을 띠 경우 그 대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인도 아대륙의 안정과 인도양 선박 운항로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영국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나의 결론은, 그러므로, 실론 정부와 서로 만족할만한 국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6</sup>

콜롬보와 “만족할만한 양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은 중앙 국가, 특히 중앙 싱할라 불교 단일 국가에 대한 모든 안보위협을 척결하는 임무에 자신들을 헌신한 스리랑카 군병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1983년 LTTE 무장반군들이 타밀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자, 스리랑카 경찰은 16개 지역 병력 훈련에 대한 영국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여기에는 “내란진압 군(훈련)”과 “특공작전훈련”이 포함되었다. 영국 외무성(FCO)은 “우리는 이러한 훈련과정에 있어 할 수 있는 한 스리랑카 정부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회답하였다.<sup>47</sup>

“영국의 스리랑카 경찰 지원(1983)”이란 FCO파일에 따르면, H.W.H. 위라싱헤(Weerasinghe) 수석 부경찰청장과 K.S. 파디위타(Padiwita) 부총경이라는 두 명의 고위경찰간부가 1983년 6월 벨파스트로 “대테러작전에서의 경찰과 군인의 역할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연수를 떠났다.<sup>48</sup> 더 나아가서, 이 고위간부들은 “대테러 조치를 배우고, 영국 내에

<sup>45</sup> The National Archives, UK, DO 35/6571.

<sup>46</sup> The National Archive FCO 37/790.

<sup>47</sup> UK Assistance to Sri Lanka Police, FSC 382/1, SECRET, <[https://www.dropbox.com/s/2ar7uqfg4bewei0/UK-assistance-to-Sri-Lankan-Police\\_1983.pdf](https://www.dropbox.com/s/2ar7uqfg4bewei0/UK-assistance-to-Sri-Lankan-Police_1983.pdf)>

<sup>48</sup> ibid.

근거지를 두고 스리랑카로부터의 독립분리를 주장하는 조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런던 시경) 특수과를 방문하기를 요청하였다<sup>49</sup> 방문 당시 그들은 아일랜드 공화군(IRA)에 대한 왕립 얼스터 보안대(Royal Ulster Constabulary)의 작전을 시찰하였다. 이 방문은 타밀에 대한 검은 7월 학살이 이루어지기 한 달 전에 이루어 졌다. 검은 7월 학살은 스리랑카 갈등을 고조시킨 주된 전환점이었다.

스리랑카 특수경찰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영국 정부 기관의 직접적인 도움과 더불어, "'키니 미니 서비스' (Keeni Meeni Service)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의 전 SAS 요원들로 구성된 영국 사설단체가 초기부터 특수부대 요원 훈련을 실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훈련내용 중에는 시위진압과정에서 쓰이는 전술, 무기훈련, 사격훈련, 대테러진압, 폭발물 취급, 나침반 사용법, 독지법, 구급법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한 미국제 M16 자동소총으로 알려진 무기에 대한 소개교육도 있었다. 이 교육 이후 특수부대 요원들은 그린베레(Green Beret)라는 칭호를 부여 받았다. 이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특수부대원들에게 수여되는 명칭이었다.<sup>50</sup>

LTTE에 맞서 안보, 군사, 정보, 경찰력을 증강시키려는 스리랑카 정부의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원은 2009년 5월 엘람 타밀에 대한 전쟁의 최종 국면까지 지속되었다. FCO의 자체 기록에 따르면, "2006년 4월, 스리랑카 정부는 공식적으로 안보 분야 개혁에 대한 영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는 다음 분야를 포함했다: 고등국방(MOD)관리, 안보정책개발 및 정보 및 치안유지."<sup>51</sup> 타밀에 대한 콜롬보의 전쟁이 최종 국면에 다다르기 약 1년 전, 영국 해군은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대통령의 아들 중 한명에게도 훈련을 제공하였다.<sup>52</sup>

법정은 무력 투쟁과 억압 기간 동안 엘람 타밀 집단학살에 있어 영국의 공조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는 국제법 위원회의 국가 책임에 관한 조항의 제16조 상 "어떤 국가에 의해 자행된 국제적 불법 행위를 원조하거나 지원한 국가"의 행위에 해당한다.<sup>53</sup> 이와 더불어 법정은 2009년의 사건이 식민통치 기간, 그리고 스리랑카 독립 단일국가의 건국 과정 동안 조장되었던 구조적 집단학살의 논리적 귀결이었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 5.2.2 미국의 공조 혐의

미국은 스리랑카와 구조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다. 이 관계는 1951년 실론 정부와 미 공보국(US Information Agency) 간의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중계국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조약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1983년 500 에이커에 다다른 세계에서 가장 큰 시설 중의 하나로 확장되었으며,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 도달 할

<sup>49</sup> ibid.

<sup>50</sup> History of the Special Task Force, <<http://www.police.lk/index.php/special-task-force>>

<sup>51</sup> <<http://www.fco.gov.uk/servlet/Front?pagename=OpenMarket/Xcelerate/ShowPage&c=Page&cid=1062157895923>> (본 글은 상기의 FCO 웹사이트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는다. 하지만 "British State Complicity in Genocide against the Tamil People"를 포함한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게시했다, Part 2: After 1945, written testimony submitted to the People's Tribunal on Sri Lanka, Bremen, Germany, 7-10, December 2013).

<sup>52</sup> Sri Lanka Daily News, 14 January 2008

<sup>53</sup> See section 5.2 above.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sup>54</sup>

1950년대 이래로, 미군 보고서들에는 트링코말리를 그들이 “사용 가능한” 해군/육군 기지로 규정해오고 있다.<sup>55</sup> 1977년 통합 국가당(United National Party) 선거는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더 깊게 만드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1982년 전 CIA 국장 출신 미국특사 월터 장군(Vernon A. Walters)은 스리랑카 특수부대 훈련 등 이스라엘의 군사적 관여를 촉진하기 위한 이스라엘 이해분과를 콜롬보 미국 대사관 내에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스리랑카를 방문했다. 당시에는 스리랑카와 이스라엘 간의 외교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sup>56</sup>

외국 군사 훈련을 스리랑카에 제공하는 공식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미국과 스리랑카는 국제 테러리즘을 진압 하는데 중대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사막의 방패(Desert Shield), 그리고 최근에는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 Iraqi Freedom: OIF)과 항구적 자유 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 OEF)과 같은 작전임무수행을 지원했으며, 선박과 항공기의 관리 및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왔다.”

57

스리랑카의 인권 유린에 대한 계속된 보고서들이 미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몇몇 형태의 미군 원조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의 리히(Leahy) 조사과정 같은<sup>58</sup>) 미국은 스리랑카 정부군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1996년, LTTE가 물라이티브(Mullaithiv) 군사기지를 점령하고 그곳의 재래식 군사력을 확보하자, 미국 특수부대는 반 게릴라 전투에 초점을 맞춘 “균형 스타일 작전”(Operation Balanced Style) 등 스리랑카와 함께 공식적 공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sup>59</sup>

<sup>54</sup> Ramesh Somasundaram, Strategic significance of Sri Lanka, Colombo: Stamford Lake, 2005, p. 137.

<sup>55</sup> 전(前) 미 공군참모총장이자 대통령 직속 군사고문이었고 국가 안전보장 회의부터 국방장관까지 역임했던 데이비드 존스(David C. Jones) 장군의 주도하에 편찬된 United States Military Posture FY 1981의 “Available naval facilities to the US & USSR in the 1950’s” 와 “Available naval facilities to the US & USSR in the 1980’s”의 지도에 트링코말리가 표시되어있다, p. 49. 이 지도들의 발행으로 스리랑카 의회에서 거센 논쟁이 벌어졌고 당시 총리인 라나싱헤(Ranasinghe)는 트링코말리가 표시된 것은 인쇄 오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발행은 철회되지 않았다. 당시 미국내의 신문보도에서도 “적절한 때에 트링코말리는 미군을 위한 휴가 시설을 제공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도시의 기능적 측면을 언급했다. The Washington Post, 25 October 1981.

<sup>56</sup> 2000년 5월 이스라엘 외무부 웹사이트의 외교적 관계회복에 관한 공식 자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1950년대 말, 이스라엘과 스리랑카 간 외교관계를 맺은 후 관계 면에서 여러 부침이 있었다. 스리랑카는 여러 경우에서 외교문제를 파기했지만 후에 타밀 타이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안보와 같은 특정 분야에 있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했다.”  
<<http://mfa.gov.il/MFA/ForeignPolicy/MFADocuments/Yearbook13/Pages/108%20%20Joint%20communique-eacute-%20regarding%20the%20re-esta.aspx>>

<sup>57</sup> Foreign Military Training: Joint Report to Congress, Fiscal Years 2006 and 2007, Bureau of Political-Military Affairs, Volume I, August 2007, p.141

<sup>58</sup> 미 국무부 민주 인권 노동국의 정책 수립 및 공공 외교 부처가 운영하는 Humanrights.gov의 웹사이트의 “An overview of the Leahy vetting process”. <<http://www.humanrights.gov/2013/07/09/an-overview-of-the-leahy-vetting-process/>>

<sup>59</sup> Athas, I. "How 2 brave soldiers saved minister". Sunday Times. 07 July 1996, Retrieved from <<http://www.sundaytimes.lk/960707/sitrep.html>>

“미국 그린베레 소속 엘리트 지휘관 팀이 대테러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스리랑카에 도착했다. 작년 3월부터 펜타곤 군사 프로그램인 “균형 스타일 작전”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스리랑카 부대를 훈련시켜 왔고, 이 번에 입국한 미군들은 작전 기간 동안 3번째로 파견된 팀이었다. 이 작전 이전까지, 미국 군사 원조는 주로 국제 군사 교류 및 훈련 프로그램(International Military Exchange and Training Programme : IMET) 하에서 장교들을 훈련하는데 국한되어 왔다. 지난주 이들 미군의 입국은 지난 수요일 미국 정부가 LTTE를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또한 정부지도자들이 콜롬보-워싱턴 관계에 대한 언론보도가 언론의 작은 지면에서조차 잘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관계를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한 캠페인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 대사관의 국방무관인 푸어 중령(Harold Michael Poore)은 더 선데이 타임즈(The Sunday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올해 합동 훈련을 3번 더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훈련들은 12에서 20명의 미군이 참여하여 30일 이상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sup>60</sup>

당시 신문 보도는 이러한 상황변화의 은폐성에 주목했다.<sup>61</sup>

2000년 LTTE가 바니(the Vanni) 지역 통제권을 확보하기 직전, 미국은 “신속 스타일 작전”(Operation Flash Style)을 시작했다. 이는 미군의 다음 몇몇 팀들이 스리랑카 군대에 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 훈련에는 먼저 미 해군의 네이비 씸 팀 원(Navy SEAL Team One)과 그 특수보트 부대가 참여 했으며, 미 공군 특수임무 비행중대(6th SOS) 팀이 스리랑카 공군을 훈련시켰다. 또한 “세 번째로 미군 심리전단의 스리랑카 육군 심리전 부처의 인원들을 훈련시켰다.”<sup>62</sup>

하지만 이러한 모든 지원도 전장의 전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LTTE는 더 많은 영토를 확보했으며, 이는 2001년에 선출된 Wickramasinghe(윅람아싱허) 스리랑카 정부로 하여금 결국 정전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정전 서명은 이듬해에 이루어졌다.<sup>63</sup> 그러나 평화 프로세스 기간 동안, 스리랑카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관여는 더욱 깊어져 갔다. 2002년 3월, 미국 대사, 윌스(Ashely Wills)는 군부대 훈련 사실을 공식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군용 트럭의 기부와 다른 특정 장비의 판매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sup>64</sup> 다른 미국 고위 관료들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만한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조치와 성명을 남발했다. 이들 중에는 보처 (Richard Boucher) 미 국무부 대변인, 남아시아 미 국무부

<sup>60</sup> Jansz, F. “US troops to help counter LTTE”, Sunday Times, 12 October 1997 Retrieved from <<http://www.sundaytimes.lk/971012/frontm.html>>

<sup>61</sup> “다른 군사연합작전과 달리 미 국방부는 스리랑카 작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스리랑카 언론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 언론들은 군부와 관련된 인권유린 문제에 예민한 정부에 의해 극심한 검열에 시달려 왔다.” - Kaufman, M. “War-torn Island Gets U.S. Advisers” philadelphia Inquirer, 23 June 1996, Retrieved from <[http://articles.philly.com/1996-06-23/news/25630233\\_1\\_tamil-tigers-tamil-eelam-liberation-tigers](http://articles.philly.com/1996-06-23/news/25630233_1_tamil-tigers-tamil-eelam-liberation-tigers)>

<sup>62</sup> Athas, I. 'Situation Report: Operation Flash Style' in the 'Year of War"', Sunday Times, 6 February 2000, Retrieved from <<http://www.sundaytimes.lk/000206/sitrep.html>>

<sup>63</sup>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엘람 해방 호랑이 사이에 2002년 2월 22일에 서명된 정전협정은 스리랑카에 대한 첫 번째 민중 법정 판결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pp.11-12

<sup>64</sup> “US stand on LTTE as terrorist organisation re-iterated”. The Island, 09 March 2002, Retrieved from <<http://www.island.lk/2002/03/09/news02.html>>

차관보 로카(Christina Rocca)와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미 국무부 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 국무부 차관보인 로카는 같은 3월 제3미해병 원정여단과 제9해병 원정군 사령관, 고클리(Timothy Ghormley)와 함께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당시 “방문은 훈련을 포함한 군사 협력을 토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진술하였다.

65

정전협정에 서명한지 7개월 후인 2002년 후반, 26명으로 구성된 미 태평양사령부의 사절단이 스리랑카를 방문했다. 육해공군의 “능력, 요구, 필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중요 시설에 대한 시찰을 마친 후,<sup>66</sup> 이들은 트링코말리 항구의 남쪽 지역이 LTTE근거지에 둘러 싸여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록 평화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었지만, 미국 사절단은, 이 곳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지이며, 따라서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략항구를 보호하기 위해 스리랑카 군경이 타이거 게릴라들로부터 트링코말리 남부 지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영향력 있는 미군 팀이 주장했다. 이 팀은 ‘현재 취약거점으로 인해 스리랑카 해군 함대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 없이 트링코말리 항구의 방어는 언제나 지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추가적으로 ‘전쟁수행 능력마저 심각한 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sup>67</sup>”

스리랑카 정부가 2006년 전쟁을 재개할 때, 정부군은 미군의 권고에 따라 실제로 트링코말리 주변 LTTE 기지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했다.

6차에 걸친 평화 회담 이후, 2003년 4월, 돌연 미국은 워싱턴 D.C.에서의 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1997년 10월 8일자로 미국은 LTTE를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금지령을 내린 바 있고, 따라서 이 조치의 해제 없이 LTTE의 참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워싱턴 사건’(Washington Incident)로 알려진 미국의 이 시도는 협상 대상 간 지위의 동등성을 위반한 것으로, 평화 프로세스의 소멸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정전 협정에도 명시되어 있듯, 전체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은 협상 대상 간 지위의 동등성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미국은 계속해서 이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자신들만 스리랑카 정부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EU와 같은 다른 행위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다. 예를 들어 2003년 12월 8일, 남아시아 미 국무부 차관보 크리스티나 로카(Christina Rocca)는 EU 집행위원회와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LTTE는 스리랑카 정부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LTTE는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집단이고 스리랑카 정부는 합법적인 정부이기 때문이다.”<sup>68</sup>

<sup>65</sup> “US spells out formula for Tiger deban”, Sunday Times, 17 March 2002, Retrieved from <<http://www.sundaytimes.lk/020317/frontm.html#fLABEL5>>

<sup>66</sup> “The cover up of a Tiger build up in Trincomalee”, Sunday Times, 14 September 2003, Retrieved from <<http://www.sundaytimes.lk/030914/>>

<sup>67</sup> Athas, I., “Trinco naval base is vulnerable”, US military warns Lanka”, Sunday Times, 14 September 2003. Retrieved from <<http://www.sundaytimes.lk/030914/front/trinco.htm>>

<sup>68</sup> Cable 03BRUSSELS5593, A/S ROCCA CONSULTATIONS ON SOUTH ASIA WITH EU <<http://wikileaks.org/cable/2003/12/03BRUSSELS5593.html>>

2006년 5월 29일 LTTE에 대한 EU의 금지령은 평화 프로세스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이는 협상 대상 간 '지위의 동등성'을 파괴했고, 전면전으로의 길을 연 셈이 되었다. 이 치명적 결정은 정전 감시 업무를 담당했던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의 견해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sup>69</sup>, 순전히 미국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나중에 당시 스리랑카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만갈라 사마라위라(Mangala Samaraweera)의 의회 연설에서도 사실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sup>70</sup>, 미국 외교전문에서 유출된 정보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다.<sup>71</sup>

2006년 평화 프로세스가 공식 중단되고 스리랑카 정부가 빠른 속도로 전쟁을 재개했을 때, 미국 의회의 지원 제한 조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원조는 급증했다.<sup>72</sup> 2006년 10월, 천 명이 넘는 미 해군이 "예정에 없던 미국-스리랑카 공동 군사훈련에 참여 했다. 이 훈련에는 오키나와에 근거를 둔 미 해병원정군과 스리랑카 해군이 함께 참여했다."<sup>73</sup> 2006년과 2007년에만 387명의 스리랑카 군경 간부들이 해외군사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수많은 전투 학교와 지역 센터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들 훈련기관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Fort Bragg, North Carolina)에 있는 존 F 케네디 특수전학교, 애리조나주(Arizona)에 있는 미국 군사정보 센터, 포트 레번워스(Fort Leavenworth) 군사대학, 그리고 조지아주 포트 베닝(Fort Benning, Georgia)에 있는 미국 전투학교가 포함되어 있었다. 총 훈련 예산은 \$2,528,389에 달했다.<sup>74</sup>

2007년 미국은 비밀리에 스리랑카 정부와 상호 군사정보 및 공동훈련 협정(Access and Cross Servicing Agreement, ACSA)에 서명했다. 당시 어떤 정부도 스리랑카와 이런 협정을 맺지 않았다. 여전히 스리랑카는 학살을 비롯해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 방어조약에 서명하는 이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한 외교전문이 유출

<sup>69</sup> 리트베스 커크(Lisbeth Kirk)는 2006년 8월 25일 EU Observer에 "Swedish general slams EU for terror listing Tamil Tigers"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곧 임기를 마치는 스리랑카 정전감시 임무 (SLMM)의 스웨덴 대표인 퇴역 준장 올프 헨릭손 (Ulf Henricsson)은 EU가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타밀 타이거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한 것을 강렬히 비판했다. 프랑스 언론 AFP에 의하면, 그는 이 결정이 스리랑카 정부에게 반군 제거에 대한 '백지 위임'(carte blanche)을 해준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타이거즈를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리기 전에, 스웨덴 장군은 이 결정이 폭력과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브뤼셀에 경고 메모를 보냈다. 헨릭손 장군은 "LTTE와 정부가 동등한 파트너로 정전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실수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만약 한 쪽이 갑자기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간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가 난관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 우리는 이미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Retrieved from <<http://euobserver.com/defence/22264>>

<sup>70</sup> 2012년 4월 4일 스리랑카의 전(前) 외무부장관 Mangala Samaraweera의 국회 연설, Retrieved from <<https://www.colombotelegraph.com/index.php/rajapaksa-then-and-now/>>

<sup>71</sup> Cable 06OSLO551, SRI LANKA CO-CHAIRS MEETING IN OSLO <<http://wikileaks.org/cable/2006/05/06OSLO551.html>>

<sup>72</sup> "U.S. halted military aid to Sri Lanka when battling LTTE terrorism: Does SL need it now?" reporting that the US had been "suspending military aid/support and taking Sri Lanka out of the eligibility list of the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Grant from 2006 through 2009", Gamage, G. Asian Tribune, 19 December 2009. Retrieved from <<http://www.asiantribune.com/news/2009/12/19/us-halted-military-aid-sri-lanka-when-battling-ltte-terrorism-does-sl-need-it-now>>

<sup>73</sup> Ferdinando, S. "Marines to land at Hambantota as part of US, Lanka Naval exercise" The Island, 19 October 2006, Retrieved from <<http://www.island.lk/2006/10/19/news28.html>>

<sup>74</sup> Foreign Military Training : Joint Report to Congress FY 2006 and 2007, Vol. 1

된 바 있다. “스리랑카는 주요 바닷길에 걸쳐 있으면서 인도의 앞문에 위치해 있다. 이는 정치군사적 활동이 아시아에 집중되는 새천년 변화의 시기에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은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서명은” 미국 국방부의 “전지구적 작전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는 남아시아에 또 다른 병참지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75</sup> 유출된 또 다른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스리랑카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우리는 이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가 이를 비공개로 하는 것에도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스리랑카 정부가 첨부문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sup>76</sup>

스리랑카 정부에 대한 미국 군사원조가 이렇게 증가했던 데에는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했던 배경이 있다. 2001년부터 미국의 군사력은 남아시아에 상당히 집중되기 시작했다.<sup>77</sup>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에 있는 미군 기지는 그 규모나 장소 면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양에서 미해군/군사 병력을 위치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로 트링코말리 항구를 확보하는 것은 미국에게 필수적인 일로 받아들여 졌다. 이 필요성에 따라 LTTE를 격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 기간 동안 인권 문제로 인해 미국이 스리랑카와 군사적 관계를 단절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유출된 외교전문들은 이와 전혀 반대되는 사실을 담고 있다. 2008년 1월 외교전문에 따르면, 콜롬보 주재 미국대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분쟁 격화 가능성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군과의 대화 라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스리랑카 군은 계속해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를 위해 왔고, 모든 종류의 공동 군사훈련 기회를 반겨 왔다.”<sup>78</sup>

전쟁 마지막 달이었던 2009년 5월, 스리랑카 정부군이 ‘발포금지구역’으로 몰아넣은 민간인들을 학살할 때, 미국은 비밀리에 스리랑카 정부와 이 지역 위성사진을 공유했다.

“대사 직무 대행은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대통령과 팔리타 코호나(Palitha Kohona) 외무부장관과의 5월 회의에서, 4월 27일 이후 정부가 지정한 ‘안전지대’(safe zone)에서의 새로운 폭격 피해 사진을 제공했다...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이전 이후’ 모습을 담고 있는 위성사진은 라자팍사 대통령의 4월 27일 선언 이후에도 ‘안전지대’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격 피해를 명백히 보여주었다...대통령은 [대사 직무 대행에게]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그러면서 질문과 함께 그는 ‘아마 당신들이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sup>75</sup> Cable 07COLOMBO303, PRESS COVERAGE FOR SIGNING OF ACQUISITION AND CROSS SERVICING AGREEMENT  
<<http://wikileaks.org/cable/2007/02/07COLOMBO303.html>>

<sup>76</sup> Cable 07COLOMBO1017, GOVERNMENT PLANS TO RELEASE ACSA ANNEXES ON JULY 20,  
<<http://wikileaks.org/cable/2007/07/07COLOMBO1017.html>>

<sup>77</sup>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2004년 4월 21에 미 국무부 차관보인 Christina Rocca가 연설한 “New horizons in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South Asia” 참조. <<http://2001-2009.state.gov/p/sca/rls/rm/31702.htm>> ;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2006 <<http://www.defense.gov/qdr/report/report20060203.pdf>>; 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March 2006 <<http://www.comw.org/qdr/fulltext/nss2006.pdf>>

<sup>78</sup> Cable 08COLOMBO66, SCENESETTER FOR ADMIRAL WILLARD'S VISIT TO SRI LANKA  
<<http://wikileaks.org/cable/2008/01/08COLOMBO66.html>>



얼굴을 찌푸렸다.”<sup>79</sup>

미국이 전쟁 범죄 행위, 반인도적 범죄 행위, 그리고 집단학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는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스리랑카 정부 및 군과 긴밀한 협력을 원함에 있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6개월 뒤, 미국 정부는 “스리랑카: 전후 미국의 전략 재조정”(Sri Lanka: Recharting US Strategy after the War)이라는 보고서를 상원에 제출했다.<sup>80</sup> 이 보고서는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스리랑카를 “잃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아시아로 그 초점을 돌리는 상황에서 스리랑카의 중요성이 크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스리랑카/미국의 군사훈련은 트링코말리 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쟁 기간을 통틀어,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스리랑카 국가의 전쟁 야욕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아주 소수의 정보만 공개되었을 뿐이다. 샌드허스트 왕립군사아카데미(Royal Military Academy Sandhurst)와 영국 합동군사령부 지휘참모대학(Joint Services Command and Staff College)에서 교관을 역임했던 진압작전 전문가, 폴 무어크라프트(Paul Moorcraft)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인들은 또한 스리랑카인들에게 그들의 야간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군력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는 항공전자기기 및 유도 무기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sup>81</sup>

무어크라프트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또한 클러스터 폭탄(cluster bombs)의 사용을 추천했다.”<sup>82</sup> 재판부에 제출된 법의학 증거는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부상자들의 상해가 클러스터 폭탄 사용 시 발생하는 상해와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지난 더블린 법정의 판결문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p.13), “전투기에서 투하된 클러스터 탄들의 잔해도 증거로 남아 있다.” 2008년 5월 5일 클러스터 폭탄 금지 조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 채택되고 2010년 8월 1일 발효되었지만, 미국과 스리랑카는 둘 다 모두 이 조약의 회원국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집단학살에 공조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 미국이 스리랑카에서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제공한 특수군사훈련이 스리랑카 군의 역량을 향상시켰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미국 특수부대 훈련 및 이스라엘 특공 훈련을 포함한 ACSA 협정 하에 진행된 미국의 지원과 후원은 스리랑카 군의 역량을 현저히 변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정전 협정 이전 약화되었던 스리랑카 군은 평화 프로세스 기간 동안 미국의 도움으로 훈련되고 강화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재발했을 때 새로운 능력, 지도력, 목표를 제대로 보여 주었다.

전쟁 이후, 미국은 공동 군사훈련의 횟수를 늘렸다. 2010년 4월 이후 이는 주로 트링코말리의 동부항구 도시에서 진

<sup>79</sup> Cable 09COLOMBO495\_a, “Sri Lanka: embassy shares images of safe zone with president”, <[http://www.wikileaks.org/plusd/cables/09COLOMBO495\\_a.html](http://www.wikileaks.org/plusd/cables/09COLOMBO495_a.html)>

<sup>80</sup> SRI LANKA: Recharting U.S. Strategy after the War,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 United States Senate, 97 December 2009, <<http://www.foreign.senate.gov/imo/media/doc/SRI.pdf>>

<sup>81</sup> Paul Moorcraft, Total Destruction of the Tamil Tigers. South Yorkshire: Pen & Sword Military, 2012, p. 110.

<sup>82</sup> ibid.

행되었다. 여기에는 미국 태평양 특수작전 사령부의 장교들도 참여 했다.<sup>83</sup> 이는 매년 다른 코드명으로 진행되는 연례 훈련이 되었다. 코드명의 예로는 '플래시 스타일 작전'(Operation Flash Style)<sup>84</sup> 그리고 '퍼시픽 앤젤 작전'(Operation Pacific Angel)<sup>85</sup>등을 들 수 있다.

집단학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공조 행위는 지난 몇 달 동안 전쟁에서 발생한 집단학살의 직접적인 가해자인 스리랑카 군대의 군사력과 그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지속적 노력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미국의 공조 역할은 평화 프로세스 시행을 위한 해외 타밀 이민 공동체들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노력들을 막거나 심지어 반전시키는 데 있었다. 미국은 스리랑카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타밀 이민 공동체의 전례 없는 세계적인 시위를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이러한 군사적 그리고 비군사적 행동들은, 2007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집단학살에 있어서 “공조”에 포함시킨 행위들 가운데, “범죄 행위를 가능케 하거나 촉진시키는 수단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sup>86</sup>

### 5.2.3. 인도 정부의 공조 혐의

법정은 “인도 정부의 타밀 집단학살 공조 혐의”를 심리할 것을 요청받았다.

1980년대 후반, 인도는 스리랑카에서 그들의 전략적 자산으로써의 타밀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하여 LTTE에 대한 군사작전에 개입하였다. 이 개입은 12,000명의 죽음을 불러 왔다. 1990년대 인도는 미국의 전략적 동맹에서 하위 파트너의 역할을 담당했고, 미국의 전쟁 패러다임에 자신들의 스리랑카 전략 정책을 종속시켰다.

스리랑카 갈등에 대한 인도의 역할 변화가 복잡하고, 재판부에 서면으로 미리 진술된 고소를 심리할 만큼 충분한 증거자료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 구성원은 이 문제에 대한 심의의 연기를 결정하였다.

### 5.2.4. 판결

스리랑카 혼자서는 집단학살에 대한 야욕을 달성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 그리고 제출된 증거에 따라서, 본 법정은 영국, 미국 그리고 인도에 대해 집단학살을 공조한 죄가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법정은 영국과 미국을 집단학살의 과정의 명백한 공범으로 판단한다. 인도에 대한 기소에 관하여, 법정은 추가적인 증거 심의가 있을 때까지 마지막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한다. 이 증거 심의 과정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잠재적 책임에 대한 조사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sup>83</sup> U.S. and Sri Lankan Militaries Participate in Joint Humanitarian Exercise, 16 April 2010. <<http://srilanka.usembassy.gov/pr-16april10.html>>

<sup>84</sup> "US navy SEALs in Trinco", Daily Mirror, 13 July 2013, <<http://www.dailymirror.lk/news/32340-us-navy-seals-intrinco.html>>

<sup>85</sup> "Operation Pacific Angel-Sri Lanka Concludes " US Pacific Command, August 2010, <<http://www.pacom.mil/media/news/2010/08/20100825-Pacific%20Angel-Sri%20Lanka%20Concludes.shtml>>

<sup>86</sup> BH vs. Serbia-Montenegro, para. 419

## 6. 권고사항

상설민중재판소의 판결이 갖는 특별한 역할과 목적은, 단지 유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정치체나 사람에게 그 선고를 내리는 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침해되어온 개인적, 집단적 권리가 실은 영구한 효력을 가지다는 것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되어버렸던 사람들이 존엄하게 그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공간과 책무를 조성해야 한다.

이 권고사항들은 구체적 시나리오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대단히 구체적이고 또한 긴급한 필요들과 부합하는 것이다: 다음의 권고들은 인종학살의 과정에서 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이들이 이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질 것을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엘람 타밀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헌신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서로 간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I.

UN에게 권고한다. UN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UN은 그 '조직적' 한계 때문이라고 공식 설명을 내놓았다. UN은 엘람 타밀 인종학살에 대한 법적 조치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학살을 예방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키고 UN 관리 및 직원을 철수하는 결정에 도달하게 되었던 이유를 확실하게, 지체 없이 설명해야 한다.
- 계속된 집단학살을 멈추는 데 집중된 전략 수립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엘람 타밀이 평화를 누릴 권리와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전략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먼저 국제조사위원회를 창설해야 한다. 조사위원 구성 시 직간접적으로 집단학살 과정과 관계된 국가들을 배제해야 한다.

## II.

EU에게 권고한다. EU은 평화 프로세스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엘람 타밀의 성격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집단학살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투명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책임이 있다.
- 정치, 경제, 문화에서의 엘람 타밀의 권리가 존중되고 증진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억압당하고 부정당한 엘람 타밀의 험난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미국 정부가 합당한 절차 없이, 그리고 해방과 저항 운동의 진화적 본질을 무시한 채로 매긴 분류법에 종속되어 있는 EU 안보 정책을 우선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 III.

독일에게 권고한다. 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 독일은 스리랑카 평화 프로세스의 협상 단계와 초기 단계에서 군사적 방안보다 외교적 협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국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독일,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의를 가진 국가들에게도 함께 권고한다.

- EU에게 주어진 권고사항들을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권과 국민의 권리에서 영감을 받은 EU의 정책이 스리랑카의 사람들에게도 지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 특히 EU 각료이사회,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을 적절한 EU의 기구들에서 EU 가입국가에 흠어진 타밀 이민자의 권리가 증진되고 보호될 수 있는 조치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옹호하고 요청해야 한다. 타밀 이민자의 권리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타밀 정치난민과 그들의 활동 및 활동기구에 대한 권리를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는 스리랑카 엘람 타밀의 안보와 웰빙을 성취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 유럽에 거주하는 엘람 타밀을 스리랑카에서의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정보원으로 수용해야 한다.

## IV.

스리랑카 국가에게 권고한다.

- 민주적 신뢰의 한 행동으로서, 이 독립 민중재판의 판결을 인정하고 공개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엘람 타밀의 존재와 정체성을 말살하려고자 하는 지속적 프로세스가 인권과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을 내는 일을 방지하는 일이다.
- 공식 담론과 행동 속에 엘람 타밀의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려는 조직적 과정을 숨기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개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제, 구조, 문화 정책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국가, 국제, 공공, 그리고 사적 자원들이 투자되고 있다.

V.

국제기관과 기구에게 권고한다. 이들은 정부와 비정부기구를 모두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국제 행위자들을 의미한다.

- 스리랑카의 상황을 특징짓는 집단학살 과정을 인지하고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 자신들의 존재, 투자 그리고 개입이 직접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스리랑카 정부의 차별적 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엘람 타밀의 시민적 저항, 정체성의 회복 및 확산과 관련한 평화 프로세스가 이민 사회에서만 아니라 스리랑카의 타밀 영토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자신들의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학살 피해자의 회복과 법적 방어 및 권리 인정을 위한 모든 활동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매우 긴급하고 우선적인 일이며, 효과적 조정과 통합을 필요로 한다.
- 면책(Impunity)에 대한 투쟁의 일환으로, 제3국에 보편적 사법권을 두는 사법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정은 5월 18일을 '물리바이칼 추도일'로 제정하여, 스리랑카에서 자행된 집단학살의 희생자를 기리고 희생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위로하는 일에 전세계 시민사회와 정부의 동참을 요청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발걸음은 희생자들의 기억을 수호하기 위해 전지구 공동체가 시작해야 할 구속(redemptive)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부디 위의 권고사항들이 집단학살의 희생자들, 그리고 온전한 인권을 향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신들의 시민사회를 동참시키기 위해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감내하면서까지 희생자들을 지지했던 기관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

## 7. 결어

본 법정은 자신의 삶을 영원히 심각하게 바꾸어 버린 사건들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증인들의 크나큰 공로를 언급하지 않고서 이 재판을 마감할 수 없다. 그들은 희생자들을 대표하기에 가장 훌륭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희생자들의 수는 너무나도 많아서 절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고통도 절대 완전히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PPT의 존재와 활동의 이유이다.

PPT는 또한 현재 스리랑카에서 잔혹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의 권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런 폭력은 그들의 개인적 자유와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 가족을 박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PPT는 만일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들 혹은 그들의 가족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우리 판결에서 언급된 국가와 행위자에게 우선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재판에서 사실을 밝히는데 공헌한 용기 있는 증인들의 안전을 계속해서 주시하기로 결단한다. 만일 그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스리랑카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PPT는 우리의 재판 절차와 심의 과정에 기여한 사실로 인해 혹시라도 증인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막기 위해 철저히 이를 감시하고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일에 계속해서 헌신할 것임을 선언한다.

## 부록 I

### 원고 측 최종 구형문 발췌

#### 엘람 타밀족에 대한 스리랑카 집단학살의 특징

우리는 증거들을 통해 여러 형태를 가진 집단학살 개념에 대해 들었다. 만일 이것이 집단학살이라면, 그것은 어떤 형태인가?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집단 학살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6가지의 구체적 특징을 확인하고 강조하고자 한다.

1. 이것은 독립 국가를 쟁취하기 위한 무장 투쟁이 아니라 민족 자결과 정당성 문제가 위협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집단학살이다. 민족 자결의 부인이 이 학살의 핵심이다. 수십 년 동안의 박해와 물리적, 문화적 파괴, 유기 (abandonment)를 경험한 엘람 타밀족은 일원화된 국가 스리랑카에서 이류의 소수자로 머물러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수용하길 거부했다. 그들은 스리랑카의 타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고향을 찾는 엘람 타밀로 스스로를 규정했다.

2. 집단학살은 영국에 의해 확립된 특정 식민 지배 규칙에 근원을 두고 있다. 영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은 인도의 독립운동과 싱할라를 분열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싱할라에 대해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대영제국 내에서 스리랑카에 특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사회적인 조작이 신식민주의 국가의 메커니즘에 그대로 이전되었다.

3. 타밀 엘람의 사회적 구성 과정은 단순히 정치적인 운동, 또는 무장 투쟁으로서만이 아니라 스리랑카 국가 지배 외곽 지역에서 최소한 20여 년간 진행된 일상의 관습과 삶의 문화적 전환 과정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비록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완전한 한 세대가 타밀 사회에서 자라 사회적인 복지를 집단화하고 카스트 제도를 없앴다. 이 사회에서 여성들은 그들 스스로의 역량도 키워갔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집단학살은 사람들의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적 열망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삶의 경험에서 이미 존재했던 사회적

원형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LTTE 무장 세력을 사회 구성 과정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민간인과 LTTE를 대치하는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구별 혹은 분업의 차원일 뿐이다. 우리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공통의 민족적 프로젝트, 곧 단합된 타밀 엘람 운동에 대해 들었다. 여기서의 집단학살은 사회적인 통합 과정을 파편화시키고 타락시켜 개인들이 오직 자신들의 생존만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집단의 실제적인 집단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반란진압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장 운동을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장 세력이 속한 사회의 통합 과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집단학살의 중요한 요소로, 성 억압(gender oppression)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전쟁 기간 동안, 그리고 현재 북부와 동부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기간 동안, 스리랑카 군대는 조직적 강간을 자행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타밀 여성들을 강간하고 이러한 강간을 통해 타밀의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타밀 여성에 대한 강간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이중적 증오 범죄로, 강제적 산아 제한과 더불어 타밀의 종족 번식을 억제하는 바로 그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5. 집단학살은 무분별한 국가 테러, 좀 더 일반적으로는 파시즘과 독재와 연관되어 쓰이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유 민주 국가들은 엘람 타밀족에 대한 집단학살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고, 국제사회는 집단학살에 대한 어떤 처벌도 가하지 않고 있는가? 이는 분명 전쟁의 최종국면에서 벌어진 학살이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국제적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의 일부로 정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밀의 상황은 인류의 일부를 영원히 비인간화해 버리는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 가진 범죄적 특징을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다.

6. 국제적으로 처벌을 면했다는 점은 이러한 집단학살 과정이 가진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이다. 이는 국가들의 국제체제에 의해 공조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는 말이다. 예상되는 집단학살을 바로 눈앞에 두고 침묵의 공조가 이루어져온 것이다. 이러한 집단학살에 대한 비판은 또한 UN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UN 체제는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희생자를 보호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비록 UN이 일정 부분 스스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실패가 개인적 또는 제도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체제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고 본다. UN의 실패는 고의적인 것이다. 이는 UN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들에 그 책임이 있다.

### 공조 혐의

이 재판은 집단학살 과정의 다양한 단계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했던 공조행위의 다양한 형태와 책임의 정도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다. 이는 그 창건 과정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집단학살 경향을 가진 스리랑카 국가를 설계한 혐의에서부터 집단학살을 방조한 혐의, 그리고 집단학살로 인해 이익을 추구한 혐의로부터 집단학살을 공모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책임의 정도도 수동적 이익추구로부터 공동범행 혐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의도나 동기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또한 공조행위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지정학적 전략 이익의 관점에서 전략 문제와 공조혐의 문제를 이 논쟁에 포함시킨다.



우리의 증거들은 우리가 계속된 집단학살에 전략적 권력으로 공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 세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가젠드라쿠마 폰난발란(Gajendrakumar Ponnambalan)의 새로운 증거에 주목한다. 그는 2009년 5월 학살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막후(behind-the-scenes) 의사소통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 재판을 위해 특별히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2009년 5월 17일 물리바이칼에서 수만의 사람들이 학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실한 노력으로 미국, 영국, 인도 대사관에 대한 접촉이 시도되었다. 외교관들이 이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각자의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가정에서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공조행위로 볼 수 있는 미국 대사의 기록이 담겨 있는 외교전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직접적 증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위키리크스 덕분이다.

우리의 진술은 이것이다. 우리는 이 공조행위를 집단학살 이후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이를 멀리 떨어진 또 다른 행위자의 공조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범행에 참여했으면서도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은폐한 공모행위였다. 자기 스스로의 우선적 목표를 가진 외부국가들의 영향력은 내부 프로세스의 주요 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평화 프로세스에서 평화로운 협상타결을 방해했고, 이를 오히려 집단학살이라는 극단적 해결책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담당했다.

## 세 국가에 대한 집단학살 공조 혐의

### i) 집단학살에 대한 영국의 공조 혐의

파나마(Panama)와 관련해서, 미국은 처음에 운하를 건설했지만 나중에는 그 주변으로 국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론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배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영국은 처음에 인도양을 통제하는 항구로 트링코말리를 원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주변으로 정치체제를 건설했다. 실론은 해상무역제국 체제 하에서 전략적으로 충실한 거점 영토가 되어야 했다. 인도와 같은 독립운동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실론은 분열 통치되었다.

분열 통치는 더 심각해졌다. 영국은 충실한 거점 영토로서 실론을 보유하는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싱할라 종파 이데올로기를 탄생시켰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인종적 적대감의 씨앗을 뿌렸다. 겉으로 일원화된 것으로 보이는 구조가 사실상 배타적, 차별적, 분열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계속해서 반복된 싱할라 동원 및 영토 식민화는 하나의 정치적 집단을 넘어서서 정치적 문화가 되었다. 그 속에서 엘람 타밀은 종파적 단일 국가의 소수집단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전략되어 버렸다. 이 국가는 계속해서 트링코말리 항구라는 영국의 전략적 이익을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는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증거 속에서도 강조되었으며, 1948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우리는 그를 원고 측 증인으로 요청한다).

영국은 스리랑카 국가를 지원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계속해서 군사적 개입을 했다. 계속된 전략적 이익에 대한 영국의 공공연한 성명들 그리고 공개된 공식자료에 기반을 둔 상세한 최신 연구보고서, 영국의 공조행위 2부(British Complicity Part 2)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스리랑카 군대를 훈련시키고 비밀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영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개입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는 스리랑카 대통령에 대한

영국 내란진압 전략가들의 고위급 자문으로부터, 1990년대 후반 전체 고위급 군간부 훈련, 군사정보, 위기관리, 비밀, 특수작전부대 훈련, 키니-미니라는 용병고용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했다. 공식 정보가 여전히 비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모든 퍼즐은 완벽하게 맞추어 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윤곽은 분명하다. 전후시기를 통틀어 2009년까지, 그리고 2009년을 포함해서 스리랑카 군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영국군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다. 2009년 초에는 북아일랜드 고위급 경찰들이 스리랑카에서 일하기도 했다.

## ii) 집단학살에 대한 미국의 공조혐의

... 우리는 스리랑카군과 미군 사이에 이루어진 비공개 유지 협력(willing cooperation)의 다른 형태들에 대한 증거를 제공받았다. 예를 들어 이런 증거는 콜롬보 미국 대사관 이스라엘 특별국, 특수라디오청취국, 그리고 널리 알려지지 않는 않았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조건을 담고 있는 군사협력 협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미국이 영국을 대체하여 스리랑카의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주요 제국주의 권력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우리는 미군이 스리랑카 군병력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수행하고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형태의 전투를 추천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03년 미국은 고의적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무너뜨렸다. 따라서 미국은 집단학살을 위한 군사적 준비와 정치적 준비에 모두 개입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또한 카메라를 통해서 타밀 증인의 증언을 들었다. 그는 평화 프로세스의 최종 국면 동안 타밀 지역에서 특수 작전이 증가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물론 그 자체로 결정적 증거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특수작전 훈련이 스리랑카 군이 타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작전 역량을 향상시켜 주었다는 보충 증거이다.

## iii) 집단학살에 대한 인도의 공조혐의

법정은 우리가 충분히 조사한 포괄적 자료 묶음을 제공받았다. 우리는 그 자료가 이 재판 과정 가운데 상당히 늦게 도착했음을 인정한다. 또한 이는 그 자료를 작성한 이들의 책임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 의도적이고 구조적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스리랑카 국가 대학살

## 의도성의 문제

제시된 증거가 보여주는 상황들을 보며 우리는 스리랑카 군대가 세인트피터스(St Peters)를 포격할 당시, 이것이 명백히 의도된 행위였는지 아니면 단순 사고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접한 다수의 강간 사건들은 의도된 행위였을까 아니면 단순 사고였을까? 그들이 병원을 폭격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증언을 통해 접한 여러 종류의 다른 만행들을 저질렀을 때, 이는 의도된 것일까 아니면 이 또한 단순한 사고였을까? 그들이 4차 제네바협정 제49조(Article 49 of the 4th Geneva Convention)를 어기면서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고, 인종동화

(ethnic dilution) 정책을 편 사실을 접했을 때, 우리는 진정 이것이 의도된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이 몰살 범죄(the crime of extermination)로 취급되는 식량과 식수, 의약품 공급 차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는 의도된 행위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트럭이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없어 일어난 해프닝이었을까?

또한 우리는 범죄의 정도와 사망자 및 부상자(정신적, 육체적)의 수적 측면에서 행위의 결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스리랑카 정부가 수십만의 민중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고자 정교하게 계산된 조건과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여러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우리는 전후에도 여전히 학살이 자행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일례로, 스리랑카 정부는 모든 타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난민캠프에 몰아넣고 있는가? 그들은 북부의 군사화를 의도했던 것인가? 여성, 남성에게 대한 강간과 고문은 의도된 것인가? 타밀 문화에 대한 공격이 실제 있었는가? 그들은 공동묘지를 정말 파괴했는가? 그들은 의도적으로 여러 장소의 명칭을 바꿔버렸는가? 힌두교 시설 꼭대기에 불교 상징과 시설을 설치한 것은 의도된 것인가 아닌가?

물론 이 모든 의도된 행위의 결과는 현재도 타밀 민간인들에 대한 비인간화와 파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타밀 사람들 사이에 극도의 공포를 낳고 있다.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당신은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접할 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이미 수십만의 타밀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떠난데 이어, 점점 더 많은 수의 엘람 타밀이 해외 망명지를 찾아 스리랑카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수많은 이들이 망명지를 찾아 떠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스리랑카 정부가 실론에서 “타밀 말살(de-Tamilise)”을 시도하고 있으며 더 많은 타밀 민간인들이 스리랑카를 떠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중 선동

학살을 위해 아래와 같은 대중 선동이 자행되었다.

“물리바이칼 지역에 있는 이들은 테러리스트들의 친족들이다. 그들을 절대 일반 시민으로 간주할 수 없다.” - 연정에 참여한 한 당의 인사(2009년 1월 8일)

### 모의의 문제(Issues of conspiracy)

여러분은 스리랑카 군대(SLA)가 제네바 협약의 총체적 위반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 없었음을 지적한 많은 증언들을 들었다. 또한 SLA가 LTTE에 군사적으로는 승리하더라도 타밀은 여전히 타밀로 남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제네바 협약의 총체적 위반과 타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 없이는 스리랑카가 절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

작금의 “탈타밀화(de-Tamilization)” 정책은 타밀 엘람 사상의 말살이 의도적으로 자행됐음을 보여주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증거이다. 여러분은 타밀 거주 지역의 인구 변동에 대한 증언, 그리고 이미 실론을 떠난 이들에 더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망명지를 찾아 떠나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

##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What is at Stake?)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2009년 5월 16일 LTTE가 군사적으로 패배한 후 이들이 항복조건을 고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물리바이칼에서는 엘람 타밀에 대한 대량학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민간인들과 LTTE 간부를 학살하는 것은 더 이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학살이 지속되었던 것은 LTTE와 함께 거주, 이동하는 이들을(초기 300,000명, 5월 16일 이후에도 150,000명 정도) 멸절시키고자 함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발포금지구역에 머물렀던 이들의 수를 의도적으로 줄여 발표했다. 정부는 75,000명이 해당 지역에 남아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그와 같은 수의 사람들을 살상하려는 의도를 감추려 했기 때문이었다.

스리랑카 정부는 타밀 타이거(the Tigers)뿐 아니라 타밀 엘람(Tamil Eelam)의 해방 사상까지 파괴코자 했다. 이 사상과 비전은 엘람 타밀을 민족적, 정치적 공동체로 인식하는 타밀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고향, 엘람에 대한 관념은 타밀 정체성에 있어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오늘날까지도 실론 북부와 동부에서 타밀 고장의 작은 흔적까지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군사 공격의 명백한 목표는 집단학살이었다. 이는 수만의 엘람 타밀을 멸절시키고자 정교하게 계획되었고, 결국 그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세계 민중은 집단학살로 문혀버린 엘람 타밀 국가(the Eelam Tamil nation)의 합법적인 투쟁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의 염원은 독립 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재판부, 양심을 지닌 세계의 민중들, 사회운동단체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이러한 학살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 줄 것과, 엘람 타밀이 국가적 결정력을 가진 합법체임을 인정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본 건에 있어 집단학살의 방지와 국가적 권리의 실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타밀 엘람의 파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극도로 정교하게 계획된 집단학살 프로그램의 결과이다. 이러한 계획은 일부 성공하였으나 그렇다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완성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계속되는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써 본 법정은 매우 중요하다.

**앤디 히긴버텀, 카렌 파커**

2013년 12월 9일 / 독일 브레멘

고소인들의 사건을 다루기 위한 검사팀은 IMRV와 IFPSL에 의해 임명되었다.

## 부록 II

### 부록: 사진, 영상, 서면 진술서

#### Introductory texts

1. Concept Paper -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ion, Germany
2. Accusation Paper: Dublin Tribunal follows up on genocide and international complicity: The Sri Lankan state and its accomplices are accused of the crime of genocide against the Eelam Tamils, The People's Tribunal on Sri Lanka, Session II –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ion, Germany and Irish Forum for Peace in Sri Lanka, Ireland.

#### Strategic importance of the island and creation of the unitary structure

1. British State's Complicity in Genocide against the Tamil People, Part 1 –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ion, Germany
2. British State's Complicity in the Genocide against the Tamil People: After 1945, Part 2 – Viraj Mendi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ion, Germany and Phil Miller, Cooperate Watch, Britain

**ANNEX 1:** - Case Study, British Counter-Insurgency Experts in Ceylon, 1971 (Taken from 'MI5 in Ceylon – the untold story', by Phil Miller, Open Democracy, 5 November, 2013)

Link: <<http://www.opendemocracy.net/opensecurity/phil-miller/mi5-in-ceylon-untold-story>>

**ANNEX 2:** - Britain's Interest in Trincomalee Harbour, 1971

(The Ministry of Defence prepared this secret memo for Prime Minister Edward Heath in May 1971).

'Soviet Military Assistance to Ceylon: The Consequences of a Grant to the Soviet Union of Naval Facilities at Trincomalee', The National Archives, FCO 37/810

**ANNEX 3:** - 'UK Arms Exports to Sri Lanka: Licences Granted For...:1997-2008', downloaded from Saferworld

Link: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809/cmselect/cmquad/178/178we23.htm>>

**ANNEX 4:** - 'Media reports on UK arms sales to Sri Lanka from 2001

- “UK dealers sell 'vacuum bombs' to Sri Lanka”, 23 November, 2001  
Link: <<http://www.theguardian.com/world/2001/nov/23/armstrade.srilanka>>
- ‘UK backed Israeli deal to enhance Lanka’s firepower Presidential probe on shady arms transactions’, 13 December 2006  
Link: <<http://www.island.lk/2006/12/13/news1.html>>  
Link: <<http://www.island.lk/2006/12/21/news16.html>>
- ‘UK arms sales to Sri Lanka match tsunami aid, 3 May, 2007  
Link: <<http://www.tamilnet.com/art.html?catid=13&artid=22056>>
- ‘Britain sold arms to Sri Lanka during Tamil Tiger conflict, 2 June, 2009  
Link: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srilanka/5426520/Britain-sold-arms-to-Sri-Lankaduring-Tamil-Tiger-conflict.html>>
- ‘Revealed: UK sells arms to Sri Lanka's brutal regime’, 18 February, 2013  
Link: <<http://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revealed-uk-sells-arms-to-sri-lankas-brutal-regime-8498768.html>>

**ANNEX 5:** - British Police Liaison with Sri Lanka

- Link: <<http://www.belfasttelegraph.co.uk/news/local-national/northern-ireland/top-psni-men-advised-forces-of-bloody-sri-lankan-regime-29659207.html>>
- Link: <<http://www.corporatewatch.org/?lid=5076>>
- Link: <[www.heraldsotland.com/news/home-news/revealed-how-scots-police-trained-sri-lankan-cops-linked-to-human-rights-abuse.22090150](http://www.heraldsotland.com/news/home-news/revealed-how-scots-police-trained-sri-lankan-cops-linked-to-human-rights-abuse.22090150)>
- Link: <<http://www.corporatewatch.org/?lid=5009>>

**ANNEX 6:** UK military courses for Sri Lanka in 2007

- Link: <<https://www.gov.uk/international-defence-training-idt>>
- Link: <[http://www.army.mod.uk/training\\_education/24475.aspx](http://www.army.mod.uk/training_education/24475.aspx)>
- Link: <<http://www.royalnavy.mod.uk/Careers/How-to-Join/Royal-Navy-Officer-training>>
- Link: <<http://www.royalnavy.mod.uk/Careers/How-to-Join/Royal-Navy-Officer-training>>

**ANNEX 7:** Military Communication Skills Project

- Link: Google search term: SL MilComSkill proposal 12Jun04.doc
- Link: Wikileaks cable cited in <<http://www.tamilnet.com/art.html?catid=79&artid=3449/>>

**ANNEX 8:** Smith, T.A. "The Reluctant Mercenary: The Recollections of a British Ex-Army Helicopter Pilot in the Anti-Terrorist War in Sri Lanka" Sussex: Book Guild Ltd, 2002

## Different components of the genocidal attack on the Tamil people, 1930-2002

### Part One: Colonisation Schemes, Discriminatory Laws and Pogroms

1. Genocide against the Tamil People: State Aided Sinhala Colonisation –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ion, Germany
2. Discriminatory Laws and Regulations –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ion, Germany
3. Constitutionalism and State Transformation in Sri Lanka – Gajendrakumar Ponnambalam, Ex-parliamentarian and the leader of the Tamil National People's Front
4. Different Aspects of Genocide – Puni Selvaratnam, a Tamil activist in exile.

**ANNEX 1:** - Sri Lanka: A Mounting Tragedy of Errors, Report of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March 1984

**ANNEX 2:** - Ethnic Conflict and Violence in Sri Lanka, Report of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81

**ANNEX 3:** - 'Justice Weeramantry (worked as a judge in ICC for several years) in his submission (29 November, 2010) to LLRC described why Sri Lankan constitution needs a drastic change and how his appeals to former President JR Jeyawardene twice and the current President twice fell on deaf ears'

Link: <<http://www.scribd.com/doc/127226195/Sri-Lanka-Justice-Weeramantry-to-Lessons-Learnt-and-Reconciliation-Commission>>

Link: <[http://transcurrents.com/tc/2010/08/outline\\_of\\_submission\\_made\\_to.html](http://transcurrents.com/tc/2010/08/outline_of_submission_made_to.html)>

**ANNEX 4:** - 'Jayantha Dhanapala's ( a Sinhalese Buddhist and a former UN Under-Secretary General ) submission to Lessons Learnt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LLRC), 25 August, 2010 which admits how every government failed to achieve national unity in which all ethnic, religious and other groups could live in security and equality'

Link: <<http://www.scribd.com/doc/104705097/Conscientious-Sinhalese-Tell-LLRC>>

**ANNEX 5:** - 'Rajapaksrized Chauvinism in Flowery prose: Sri Lankan Diplomat's outright humiliation of Sri Lankan Tamils'

Link: <<http://www.groundviews.org/2009/02/08/rajapaksrized-chauvinism-in-flowery-prose-sri-lankan-diplomat%E2%80%99s-outright-humiliation-of-sri-lankan-tamils/>>

**ANNEX 6:** - ‘The President is refusing to publish the reports of the Commissions of Inquiry and Committees Appointed by him in 2006 – 2012’

Link: <<http://www.scribd.com/doc/85007346/A-List-of-Commissions-of-Inquiry-and-Committees-Appointed-by-the-Government-of-Sri-Lanka-2006-%E2%80%93-2012>>

**ANNEX 7:** - ‘Malinga H. Gunaratne: For a Sovereign State, Colombo: Vijith Yapa Publications, Colombo, 2009

**ANNEX 8:** - ‘Sri Lanka: Twenty years of make-believe, Sri Lanka’s Commissions of Inquiry’, Amnesty International, 11 June 2009,

Link: <<https://www.amnesty.org/en/library/info/ASA37/005/2009/en>>

**ANNEX 9:** - ‘Can the East be won through Human Culling?’

Special Economic Zones – An Ideological Journey Back to 1983’ – Report by UTHR(J), No. 26, date: 3 August, 2007

## **Racial Statements ( Genocidal intent) of Sinhala Political Leaders, 1915-2012 – Irish Forum for Peace in Sri Lanka**

**ANNEX 1:** -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s of Mass Atrocities in Sri Lanka: Challenges to Justice and Recovery’

Link: <[http://www.tamilnet.com/img/publish/2012/02/Representations\\_of\\_Mass\\_Killings\\_in\\_Sri\\_Lanka\\_edits.pdf](http://www.tamilnet.com/img/publish/2012/02/Representations_of_Mass_Killings_in_Sri_Lanka_edits.pdf)>

## **Part Two: The Change of Character of the Coordinated Attack on the Tamil People**

1. Massacres and Pogroms, Destruction of Property, Sexual Violence and Assassinations of Civil Society Leaders, 1956 – 2013 ( excluding last phase of the war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09 and period of Indian occupation from 1987 to 1989) – N. Malathy, a humanitarian worker and survivor of Mullivaikkal massacres

**ANNEX 1:** Lest We Forget: Massacres of Tamils, 1956-2001, Vol. 1 – North East Secretariat on Human Rights (NESOHR)

**ANNEX 2:** Lest We Forget: Massacres of Tamils, 2002-2008, Vol. 2 – North East Secretariat on Human Rights (NESOHR)

**ANNEX 3:** Lest We Forget: Massacres of Tamils, Last phase of the war, Vol.3 – North East Secretariat on Human Rights (NESOHR)



**ANNEX 4:** Vallipunam Senchchola Complex Massacre, 2006.08.14 – North East Secretariat on Human Rights (NESOHR)

**ANNEX 5:** Scale of Atrocities committed against the Tamils in Tamil Eelam and Sri Lanka – Compiled by E. Logeswaran

2. Burning of Jaffna Library and Welikada Prison Massacre – Anton Philip, a survivor of Welikada Prison Massacre

**ANNEX 1:** A documentary film on Burring of Jaffna Library

**ANNEX 2:** ‘Requiem for the Jaffna Library: Chronicling the fall and resurrection of the Jaffna Public Library, and mourning all that can never be recovered’ – Sundar Ganesan, in Himal: Southasian, Vol. 26, No. 1, pp.179-188

3. Memorandum of Argument: Soci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Genocide of Tamils in Sri Lanka – R. Cheran,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at the University of Windsor, Canada.

**ANNEX 1:** List of Genocidal Massacres between 1984 to 1987 reported by the weekly English language newspaper Saturday Review, Sri Lanka – R. Cheran

## **Mullivaikkal: The Last Phase of the War**

1. Implementation of the Ceasefire Agreement – Gajendrakumar Ponnambalam

2. A Fleeting Moment in My Country: The Last Years of the LTTE De-Facto State – N. Malathy

3. Disappearance of about 100 people who surrendered to Sri Lankan Army on 18th May 2009, Selvapuram, (Vadduvakal) Mullaitivu – Ananth Sasitharan, Member of the Northern Provincial Council and a War Widow

4. Systematic Extermination of the Eelam Tamil People reported to the world by TamilNet – Jeyancharan Gopinath, Editor of TamilNet

5. No Fire Zone, Documentary film on the last phase of the war – Callum Macrae, Film Maker and Journalist

**ANNEX 1:** Request for Release of my husband Mr.Elilan (Sinnathurai Sasitharan) – a letter written by Ananth Sasitharan to Ms.Navaneetham Pillai,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date: 15 September, 2012

**ANNEX 2:** Vanni Tragedy – a letter written by Ananth Sasitharan to the UN Panel of Experts on Sri Lanka, date: 11 November, 2010

**ANNEX 3:** Habeas Corpus Application sent by Murugathas Kajenthini to the Provincial High Court of Northern Province Holden in Vauniya in July 2013 (The applicant testifies that she saw her husband and many others surrendered to the Sri Lankan Security Forces on the 18 May, 2009)

**ANNEX 4:** Habeas Corpus Application sent by Vishnukumar Vasanthi to the Provincial High Court of Northern Province Holden in Vauniya ((The applicant testifies that she saw her daughter, son-in-law and three children, and many others surrendered to the Sri Lankan Security Forces on the 18 May, 2009)

**ANNEX 5:** ‘Top Tiger leaders in security forces net’ – Reported by Chris Kamalendran  
Link: <[http://sundaytimes.lk/090531/News/sundaytimesnews\\_03.html](http://sundaytimes.lk/090531/News/sundaytimesnews_03.html)>

**ANNEX 6:** ‘Sri Lanka: Government misrepresentations regarding the scale of the crisis’ – Reported by Amnesty International, May 2009, ASA 37/012/2009

**ANNEX 7:** ‘Captive, Handcuffed and Dying... 'Brutal' and 'Shocking' Describe Newly Released Sri Lanka War Crime Images’  
Link: <<http://www.salem-news.com/articles/june082012/lte-new-photos-tk.php>>

**ANNEX 8:** ‘The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by the Sri Lankan security forces against Eelam Tamils’ – Reported by War without Witness  
Link:  
<[http://www.warwithoutwitness.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9%3A20th-april-2009-eye-witness-account-sri-lanka-army-use-chemical-weapons-cluster-ammunitions-and-phosphorous-bombs-took-more-than-1000-tamils-as-hostages&catid=41%3Adaily-hr-report&Itemid=65](http://www.warwithoutwitness.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9%3A20th-april-2009-eye-witness-account-sri-lanka-army-use-chemical-weapons-cluster-ammunitions-and-phosphorous-bombs-took-more-than-1000-tamils-as-hostages&catid=41%3Adaily-hr-report&Itemid=65)>

**ANNEX 9:** Photos of murdered rape victims (female LTTE combatants)

**ANNEX 10:** Photographs provided by a medical doctor on alleged attacks on hospitals (including use of chemical weapons) by the Sri Lankan Security Forces.

## Aftermath of Mullivaikal

1. The post-war treatment of the Tamil nation and its people in the Island of Sri Lanka in the post-war (2009) context: A conceptual/analytical framework and some preliminary evidence for the ongoing structural genocide of the Tamil Nation in the post war context – a legal expert based in the Northern Province of the Tamil region
2. Cases of sexual violence and torture of Eelam Tamils and deportations of Eelam Tamil asylum seekers by the British government – a legal expert based in London

**Appendix 1:** 16 affidavits of Eelam Tamil women who were raped by the Sri Lankan Security Forces

**Appendix 2:** 70 affidavits of Eelam Tamil victims of rape and torture

3. Deportation of War Crime Witnesses from the Britain – Report by Shivani Jegarajah, a UK-based legal expert

**Mass Detentions:**

**ANNEX 1:** Beyond Lawful Constraints: Sri Lanka’s Mass Detention of LTTE Suspects – Report by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September, 2010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NEX 2:** ‘We Will Teach You a Lesson’: Sexual Violence against Tamils by Sri Lankan Security Forces - Report by Human Rights Watch, February, 2013

**ANNEX 3:** A Call for Accountability: Death of a Young Woman in Kilinochchi – Report by The Social Architects, date: 30, November, 2013

Link: <<http://groundviews.org/2013/11/30/a-call-for-accountability-death-of-a-young-woman-in-kilinochchi/>>

**ANNEX 4:** Women and Children in The North Sexual Harassment, Grievances and Challenges – Report by WATCHDOG

**ANNEX 5:** Sri Lanka: Women’s Insecurity in the North and East – Report by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 December, 2011

Link: <<http://www.crisisgroup.org/en/regions/asia/south-asia/sri-lanka/217-sri-lanka-womens-insecurity-in-the-north-and-east.aspx>>

**ANNEX 6:** The Plight of Tamil Women in Sri Lanka – Report submitted by the Canadian Tamil Congress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3, April, 2012

**ANNEX 7:** Sri Lanka’s Unfinished War – a documentary film by Frances Harrison on allegations of rape and torture by the Sri Lankan Security Forces

Link: <<https://www.colombotelegraph.com/index.php/video-sri-lankas-unfinished-war-frances-harrison-and-callum-macrae/>>

**ANNEX 8:** Haunted by Her Yesterdays, Documentary film on Female Ex-Combatants in Post-War Sri Lanka – The Social Architects

Link: <<http://www.internationalpolicydigest.org/2013/03/27/haunted-by-her-yesterdays-female-ex-combatants-in-post-war-sri-lanka/>>

## Coercive Population Control:

**ANNEX 9:** Coercive Population Control in Kilinochchi – Report by The Social Architects, 13 September, 2013

Link: <<http://groundviews.org/2013/09/13/coercive-population-control-in-kilinochchi/>>

**ANNEX 10:** Above the Law: Violations of Women’s Reproductive Right in Northern Sri Lanka – Report by The Social Architects

Link: <<http://groundviews.org/2013/10/11/above-the-law-violations-of-womens-reproductive-rights-in-northern-sri-lanka/>>

## Torture:

**ANNEX 11:** Out of Silence: New Evidence of Ongoing Torture in Sri Lanka, 2009-2011 – Report by Freedom from Torture, Medical Foundation for the Care of Victims of Torture

## Militarisation:

**ANNEX 12:** ‘Notes on the Military Presence in Sri Lanka’s Northern Province’, i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XLVII, No. 28 July, 2012.

**ANNEX 13:** Militarization in North-East Denotes Military Involvement and Interference in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 Report by M. A. Sumanthiran, M.P., Date: 19, August, 2012, Link: <<http://dbsjeyaraj.com/dbsj/archives/9746>>

## Land Grabs and Displacements:

**ANNEX 14:** ‘Global Overview 2012: People internally displaced by conflict and violence’ – Report by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29 April 2013,

Link: <[http://www.internal-displacement.org/8025708F004BE3B1/\(httpInfoFiles\)/DB8A259305B071A8C1257B5C00268DDC/\\$file/global-overview-2012.pdf](http://www.internal-displacement.org/8025708F004BE3B1/(httpInfoFiles)/DB8A259305B071A8C1257B5C00268DDC/$file/global-overview-2012.pdf)>

**ANNEX 15:** ‘Sri Lanka: A hidden displacement crisis’ – Report by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31 October 2012

Link: <[http://www.internal-displacement.org/8025708F004BE3B1/\(httpInfoFiles\)/0F7746546306FCB3C1257AA8005845A6/\\$file/srilanka-overview-oct2012.pdf](http://www.internal-displacement.org/8025708F004BE3B1/(httpInfoFiles)/0F7746546306FCB3C1257AA8005845A6/$file/srilanka-overview-oct2012.pdf)>

**ANNEX 16:** ‘Sri Lanka Land Grabbing and Development Induced Displacement’ – Written statement submitted by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at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date: 13, February, 2012

**ANNEX 17:** ‘Land in the Northern Province: Post-war Politics, Policy and Practices’ – Report by Bhavani Fonseka and Mirak Raheem,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Colombo, December, 2011

**ANNEX 18:** ‘No war, no peace: the denial of minority rights and justice in Sri Lanka’ – Report by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19 January 2011

**ANNEX 19:** ‘A Brief Profile of the Trincomalee High Security Zone and Other Issues in Trincomalee District’ – Report by Bhavani Fonseka and Mirak Raheem,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Colombo, May 2008

**ANNEX 20:** The Gazette Notification of the Sri Lankan State declaring acquisition of Muthur East (Sampur High Security Zone) in Trincomalee, No. 1499/25, 30 May, 2007

### **Destruction of Livelihoods:**

**ANNEX 21:** ‘Lanka @ 63: The “military-business model” of post-war development’ – Article by Rajasingham-Senanayake, Darini, in *groundviews-journalism for citizens*,  
Link: <<http://groundviews.org/2011/02/27/lanka-63-the-%E2%80%99military-business-model%E2%80%99-of-post-war-economic-development/>: downloaded: 04/02/2013>

### **Attacks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NEX 22:** Annual Health Bulletin, 2012 – Issued by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Northern Province, Sri Lanka

**ANNEX 23:** ‘Collective trauma in the Vanni – A qualitative inquiry into the mental health of the internally displaced due to the civil war in Sri Lanka’ – Article by Daya Somasundaram,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Jaffna, Sri Lanka, i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Systems*, 2010, 4:22 doi:10.1186/1752-4458-4-22  
Link: <<http://www.ijmhs.com/content/4/1/22>>

### **Dismantling of Cultural Identity:**

**ANNEX 24:** ‘War by other Means. Expansion of Sinhala Buddhism into the Tamil Region in “Post-War” Ilam – Article by Jude Lal Fernando ( with 40 images), in *Buddhism among Tamils in Tamilakam and Ilam, Part 3, Extension and Conclusions*, (ed.) Peter Schalk, Uppsala, University of Uppsala, 2013.

**ANNEX 25 :** ‘Producing the Present: History as Heritage in Post-War Patriotic Sri Lanka’ – Article by Nira Wickramasinghe, in *Economic & Political Weekly*, Vol. xlviii , No 43, 26 October, 2013,

pp. 91-100 Link: <[https://www.colombotelegraph.com/wp-content/uploads/2013/11/Producing\\_the\\_Present.pdf](https://www.colombotelegraph.com/wp-content/uploads/2013/11/Producing_the_Present.pdf)>

**ANNEX 26:** ‘Biased and Prejudiced Collection on Sri Lanka’, Article by Gananath Obeyesekere, in Economic & Political Weekly, Vol. 47, No. 04, 28 January-03 February 2012

Link: <[https://www.colombotelegraph.com/wp-content/uploads/2013/11/Producing\\_the\\_Present.pdf](https://www.colombotelegraph.com/wp-content/uploads/2013/11/Producing_the_Present.pdf)>

**ANNEX 27:** ‘War Memorial Unveiled’ – A Video Footage by Daily Mirror, 09 May, 2010

Link: <<http://www.youtube.com/watch?v=kEes9C-TB00>>

**ANNEX 28:** ‘Historic gun battle memories at Elephant Pass immortalized’, in www.defence.lk, 30 December, 2010

Link: <[http://www.defence.lk/new.asp?fname=20100430\\_09](http://www.defence.lk/new.asp?fname=20100430_09)>

**ANNEX 29:** ‘Puthukkudiyiruppu victory monument unveiled’, in www.defence.lk, 30 December, 2010

Link: <[http://www.defence.lk/new.asp?fname=20091209\\_06](http://www.defence.lk/new.asp?fname=20091209_06)>

**ANNEX 30:** ‘28 Buddha statues erected along A-9 Highway since war ended in May 2009’, in Sri Lanka Brief, 20 February, 2012

Link: <<http://www.srilankabrief.org/2012/02/28-buddha-statues-erected-along-9.html>>

**ANNEX 31:** ‘Exclusive: Erasing the cultural leftover of Tamils to convert Sri Lanka into Sinhala country’ – Report by a correspondent, in The Weekend Leader, 04, August, 2011

Link: <<http://archive.is/wki9y>>

## Coercive Method of Counter-Insurgency and US Complicity

1. Brief Introduction to US Complicity –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ion
2. Genocide or War on Terror – Bashana Abeywardane, Journalists for Democracy in Sri Lanka

**ANNEX 1:** ‘US navy SEALs in Trinco’ – Reported by Daily Mirror, 13 July, 2013

Link: <<http://www.dailymirror.lk/news/32340-us-navy-seals-in-trinco.html>>

**ANNEX 2:** Paul Moorcraft: ‘Total Destruction of the Tamil Tigers: The Rare Victory of Sri Lanka's Long War, South Yorkshire: Pen & Sword Military, 2012

**ANNEX 3:** Foreign Minister Mangala Samaraweera’s Parliamentary Speech on 4 April, 2012

Link: <<https://www.colombotelegraph.com/index.php/rajapaksa-then-and-now/>>

**ANNEX 4:** ‘Operation Pacific Angel-Sri Lanka Concludes’

Link: <<http://www.pacom.mil/media/news/2010/08/20100825-Pacific%20Angel-Sri%20Lanka%20Concludes.shtml>>

**ANNEX 5:** ‘U.S. and Sri Lankan Militaries Participate in Joint Humanitarian Exercise’, Press Release, 16 April, 2010

Link: <<http://srilanka.usembassy.gov/pr-16april10.html>>

**ANNEX 6:** ‘Sri Lanka: Re-charting US Strategy after the War’ – Report by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7 December, 2009

Link: <<http://www.foreign.senate.gov/imo/media/doc/SRI.pdf>>

**ANNEX 7:** Confidential Cable, 5 May, 2009, ‘Sri Lanka: embassy shares images of safe zone with president’

Link: <[http://www.wikileaks.org/plusd/cables/09COLOMBO495\\_a.html](http://www.wikileaks.org/plusd/cables/09COLOMBO495_a.html)>

**ANNEX 8:** Confidential Cable, 14 January, 2008, SCENESETTER FOR ADMIRAL WILLARD'S VISIT TO SRI LANKA

Link: <<http://wikileaks.org/cable/2008/01/08COLOMBO66.html>>

**ANNEX 9:** Foreign Military Training: Joint Report to Congress, Fiscal Years 2006 and 2007, Bureau of Political-Military Affairs, Vol. I, August, 2007, p.141

See Foreign Military Training and DoD Engagement Activities of Interest Reports FY 2006 - 2007 (US State Department)

Link: <<http://www.state.gov/t/pm/rls/rpt/fmtrpt/2007/index.htm>>

**ANNEX 10:** Confidential Cable, 19 July 2007, SRI LANKA: GOVERNMENT PLANS TO RELEASE ACSA ANNEXES

Link: <<http://wikileaks.org/cable/2007/07/07COLOMBO1017.html>>

**ANNEX 11:** Unclassified Cable, 20 February, 2007, SRI LANKA: PRESS COVERAGE FOR SIGNING OF ACQUISITION AND CROSS SERVICING AGREEMENT

Link: <<http://wikileaks.org/cable/2007/02/07COLOMBO303.html>>

**ANNEX 12:** ‘Marines to land at Hambantota as part of US, Lanka Naval exercise’ – Reported by Island

Link: <<http://www.island.lk/2006/10/19/news28.html>>

**ANNEX 13.** ‘Swedish general slams EU for terror listing Tamil Tigers’ – Reported by Lisbeth Kirk, in EUobserver, 25 August, 2006

Link: <<http://euobserver.com/defence/22264>>

**ANNEX 14:**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rch, 2006

Link: <<http://www.comw.org/qdr/fulltext/nss2006.pdf>>

**ANNEX 15:** US Quadrennial Defence Review report, February, 2006

Link: <<http://www.defense.gov/qdr/report/report20060203.pdf>>

**ANNEX 16:** R. Somasundaram: Strategic Significance of Sri Lanka, Colombo: Stamford Lake, 2005

**ANNEX 17:** ‘New horizons in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South Asia’ – Speech by Christina Rocca,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South Asia, at 21 April, 2004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ink: <<http://2001-2009.state.gov/p/sca/rls/rm/31702.htm>>

**ANNEX 18:** Confidential Cable, 11 December, 2003, 03BRUSSELS5593, A/S ROCCA CONSULTATIONS ON SOUTH ASIA WITH EU

Link: <<http://wikileaks.org/cable/2003/12/03BRUSSELS5593.html>>

**ANNEX 19:** ‘The cover up of a Tiger build up in Trincomalee’ – Reported by Sunday Times, 14 September, 2003

Link: <<http://www.sundaytimes.lk/030914/>>

**ANNEX 20:** ‘Trinco naval base is vulnerable: US military warns Lanka’ – Reported by Iqbal Athas, in Sunday Times, 14 September, 2003

Link: <<http://www.sundaytimes.lk/030914/front/trinco.htm>>

**ANNEX 21:** Confidential Cable, 03 May, 2003, SRI LANKA CO-CHAIRS MEETING IN OSLO

Link: <<http://wikileaks.org/cable/2006/05/06OSLO551.html>>

**ANNEX 22:** ‘US spells out formula for Tiger deban’ – Reported by Sunday Times, 17 March, 2002

Link: <<http://www.sundaytimes.lk/020317/frontm.html#fLABEL5>>

**ANNEX 23:** Joint communique regarding the re-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Israel and Sri Lanka, 15 May, 2000

Link:<<http://mfa.gov.il/MFA/ForeignPolicy/MFADocuments/Yearbook13/Pages/108%20%20Joint%20communiqu-eacute-%20regarding%20the%20re-esta.aspx>>

**ANNEX 24:** “‘Operation Flash Style’ in the ‘Year of War’” – Reported by Sunday Times, 6 February, 2000

Link: <<http://www.sundaytimes.lk/000206/sitrep.html>>

**ANNEX 25:** ‘US troops to help counter LTTE’ – Reported by Frederica Jansz, in Sunday Times, 12 October, 1997

Link: <<http://www.sundaytimes.lk/000206/sitrep.html>>



**ANNEX 26:** 'War-torn Island Gets US Advisers: Green Berets Are Quietly Training Sri Lankan Soldiers' – Reported by Mark Kaufman, in The Philadelphia Inquirer, 23 June, 1996  
Link: <[http://articles.philly.com/1996-06-23/news/25630233\\_1\\_tamil-tigers-tamil-eelam-liberation-tigers](http://articles.philly.com/1996-06-23/news/25630233_1_tamil-tigers-tamil-eelam-liberation-tigers)>

**ANNEX 27:** United States Military Posture FY 1981 – Compiled by the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OJCS) General David C. Jones

**ANNEX 28:** Marine Corps: Vision & Strategy 2025, October 2007  
Link: <[http://www.au.af.mil/au/awc/awcgate/usmc/vision-strategy\\_2025.pdf](http://www.au.af.mil/au/awc/awcgate/usmc/vision-strategy_2025.pdf)>

**ANNEX 29:** Re-posturing the Force: US Overseas Prese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 US Naval War College – February 2006  
Link: <<http://www.usnwc.edu/Publications/Naval-War-College-Press/Newport-Papers/Documents/26-pdf.aspx>>

**ANNEX 30:** US seeks Asian partners for Global Hawk eye in sky, REUTERS, 3 October 2007  
Link: <<http://www.reuters.com/article/2007/10/03/asia-usa-globalhawk-idUSN0326925020071003>>

**ANNEX 31:** US and Lanka to share advanced spy technology, Daily Mirror, 5 October 2007,  
Link: <[http://www.lankanewspapers.com/news%5C2007%5C10%5C20061\\_image\\_headline.html](http://www.lankanewspapers.com/news%5C2007%5C10%5C20061_image_headline.html)>

**ANNEX 32:** DEATH OF THE TIGER - Sri Lanka's brutal victory over its Tamil insurgents, New Yorker, 17 January 2011

**ANNEX 33:** U.S. Naval Basing in Sri Lanka? - Small Wars Journal, 15 October 2011.  
Link: <<http://smallwarsjournal.com/jrnl/art/us-naval-basing-in-sri-lanka>>

**ANNEX 34:** A role for Sri Lanka in US pivot to Asia, 27 March 2013, The Hill,  
Link: <<http://thehill.com/blogs/congress-blog/foreign-policy/290585-a-role-for-sri-lanka-in-us-pivot-to-asia>>

**ANNEX 35:** US Defence Attaché courts trouble; defends Lanka, Sunday Times, 11 June 2011,  
Link: <<http://sundaytimes.lk/110605/Columns/cafe.html>>

## Indian Complicity

1. Indian Complicity in Eelam Tamil Genocide - Thirumurugan Gandhi and Umar Nain, May Seventeen Movement, Tamilnadu, India
2. Eelam Tamil Genocide Complicity of Indian State & UN – Thirumurugan Gandhi and Umar Nain, May Seventeen Movement, Tamilnadu, India

3. Indian Support to the Srilankan Regime: From Peace Talks to End of War – Thirumurugan Gandhi and Umar Nain, May Seventeen Movement, Tamilnadu, India

**ANNEX 1:** BJP leader Yashwant Sinha’s Speech to the Indian Parliament, 07 March, 2013

**ANNEX 2:** ‘Rights Up Front’: A Plan of Action to strengthen the UN’s role in protecting people in crises – Follow-up to the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s Internal Review Panel on UN Action in Sri Lanka

**ANNEX 3:**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s Internal Review Panel headed by Charles Petrie on United Nations action in Sri Lanka, November, 2012

Link: <[http://www.un.org/News/dh/infocus/Sri\\_Lanka/The\\_Internal\\_Review\\_Panel\\_report\\_on\\_Sri\\_Lanka.pdf](http://www.un.org/News/dh/infocus/Sri_Lanka/The_Internal_Review_Panel_report_on_Sri_Lanka.pdf) Blacked-out Portions of Charles Petrie’s Report>

**ANNEX 4:** Blacked-out portions of Charles Petrie's Report

**ANNEX 5:** Nitin A. Gokhale: Sri Lanka – From War to Peace, New Delhi: Har-Anand Publications, 2010

**ANNEX 6:** ‘Pawns of Peace’: Evaluation of Norwegian peace efforts in Sri Lanka, 1997-2009 – Report by Evaluation Department, Norad, Norway, Report 5/2011

**ANNEX 7:** ‘Winning Wars: political will is the key’ – Interview given by Sri Lankan Defence Secretary to the Indian Defence Review, in www. Defence.lk, 05 November, 2011

Link: <[http://www.defence.lk/new.asp?fname=20100429\\_05](http://www.defence.lk/new.asp?fname=20100429_05)>

**ANNEX 8:** Statement by External Affair Minister Pranab Mukherjee on his visit to Sri Lanka, January 28, 2009.

Link: <<http://www.mea.gov.in/Speeches-Statements.htm?dtl/880/Statement+by+EAM+in+Sri+Lanka>>

**ANNEX 9:** ‘Civilian Casualties in Vanni, North, Sri Lanka’ – Report by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Resident Coordinator and Humanitarian Coordinator, March 2009

## **The Peace Process brings a Halt to the Genocide –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1. The Peace Process calls Halt to the Genocide: The Role of Germany – Nicolai Jung and Viraj Mendi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ion, Bremen

2. The German Engagement in Conflict Resolution through Rehabilitation and Basic Education for Children before and after the 2002 Peace Process – Dr Reinhardt Bolz, former director of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GTZ)

3. Psychological Impact of War and Treating Trauma – Dr Waltraud Bolz (GTZ)

4. A Documentary Film on Education Programmes as Part of Rehabilitation Projects – Dr Huck (GTZ)

**ANNEX 1:** ‘Exportboom: Deutschland steuert auf Rekordüberschuss zu’, Reported by Der Spiegel, 05 September, 2013

Link: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exportboom-deutschland-steuert-auf-rekordueberschuss-zu-a-920607.html>>

**ANNEX 2:** ‘Exporte aus Deutschland nach Güterabteilungen’ – Reported in Das Statistik-Portal, 2013

Link: <<http://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51019/umfrage/exportgueter-aus-deutschland/>>

**ANNEX 3:** ‘Rajapaksa: Then and Now’ – Article by Mangala Samaraweera, in Colombo Telegraph, 4 April, 2012

Link: <<https://www.colombotelegraph.com/index.php/rajapaksa-then-and-now/>>

**ANNEX 4:** Christian Stokke: ‘Liberal Peace in Question. The Sri Lankan Case’, in Liberal Peace in Question: Politics of State and Market Reform in Sri Lanka, (ed.) Christian Stokke and Jayadeva Uyangoda, London: Anthem Press, 2011

**ANNEX 5:** Suthaharan Nadarajah and Luxshi Vimalarajah: ‘The Politics of Transformation: The LTTE and the 2002-2006 peace process in Sri Lanka’, Berghof Transitions, Series No. 4, 2008

**ANNEX 6:** Jeffrey Lunstead: ‘The United States’ Role in Sri Lanka’s Peace Process, 2002-2006, Colombo: The Asia Foundation, 2007

**ANNEX 7:** ‘SLMM Head slams EU, says GoSL, LTTE equal partners’ – Reported in LankaNewspapers, 24 August, 2006

Link: <<http://www.lankanewspapers.com/news/2006/8/8263.html>>

**ANNEX 8:** Zunzer, Wofram: Sri Lanka Round Table. New Perspectives in the Sri Lankan Peace Process -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and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rlin: Berghof Foundation, 2004

**ANNEX 9:** Rajesh Venugopal: ‘The global Dimensions of Conflict in Sri Lanka’, Working Paper, Number 99, Oxford: Queen Elizabeth House, 2003.

**ANNEX 10:** Jonathan Goodhand and Phillipa Atkinson: Conflict and Aid: Enhancing the Peacebuilding Impact of International Engagement, London: International Alert, London, 2001

**ANNEX 11:** Ludgera Klemp: ‘Entwicklungspolitik am Scheideweg – politische Randerscheinung oder globale Strukturpolitik?’, in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8-19/2001

**ANNEX 12:** Tobias Debiel and Volker Matthies: ‘Krisenprävention - mehr Fragen als Antworten? Eine Zwischenbilanz zur deutschen Entwicklungs-,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in E+Z – Entwicklung und Zusammenarbeit, Nr.9, September, 2000

**ANNEX 13:** Jochen Kenneweg: 'Länderkonzepte und Förderstrategien. Zur Weiterentwicklung des Instrumentariums des BMZ', in E+Z – Entwicklung und Zusammenarbeit, Nr.9, September, 2000

**ANNEX 14:** Stephan Klingebiel: 'Fallbeispiel: Sri Lanka, Konditionierung', in Die Rolle der Entwicklungszusammenarbeit in gewalttätigen Konflikten, Dokumentation einer Fachtagung in der TU Berlin, vom 3.-5.12.1999

**ANNEX 15:** Stephan Klingebiel: 'Imp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Conflict Situations', in Cross-section Report on Evaluations of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in Six Countries. Bonn,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1999

**ANNEX 16:** Reinhold E.Thiel: 'Entwicklungspolitik als Friedenspolitik. Interview mit Ministerin Heidemarie Wiczorek-Zeul', in E+Z – Entwicklung und Zusammenarbeit. Nr.1, January, 1999

**ANNEX 17:** Mark Kaufman: 'U.S. quietly expands its role in Sri Lanka. Green Berets help train soldiers, open path for military presence' – Reported in The Dallas Morning News, 1996

**ANNEX 18:** S. D. Muni: Pangs of Proximity: India and Sri Lanka's Ethnic Crisi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1993

## Additional Documents

1. Sri Lanka: Joint Civil Society Memorandum to Commonwealth Heads of States (CHOGM), 7 November, 2013

Link: <<http://www.srilankabrief.org/2013/11/sri-lanka-joint-civil-society.html>>

2. Full Speech: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avi Pillay At The Press Conference On Her Mission To Sri Lanka, 31 August, 2013

Link: <<https://www.colombotelegraph.com/index.php/full-speech-un-high-commissioner-for-human-rights-navi-pillay-at-the-press-conference-on-her-mission-to-sri-lanka/>>

3. A Public Memo to Members of Parliament representing the Tamil National Alliance from the Tamil Civil Society, 13 December, 2011

Link: <<http://groundviews.org/2011/12/15/a-public-memo-to-members-of-parliament-representing-the-tamil-national-alliance-from-the-tamil-civil-society/>>

4. Report of Learnt Lessons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November, 2011

Link: <<http://slembassyusa.org/downloads/LLRC-REPORT.pdf>>

5.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s Panel of Experts on Accountability in Sri Lanka, 31 March, 2011

Link: <[http://www.un.org/News/dh/infocus/Sri\\_Lanka/POE\\_Report\\_Full.pdf](http://www.un.org/News/dh/infocus/Sri_Lanka/POE_Report_Full.pdf)>

6. President's Speech to the Parliament on the Defeat of the LTTE, 19 May, 2009

Link:

<[http://www.satp.org/satporgtp/countries/shrilanka/document/papers/president\\_speech\\_parliament\\_defeatofLTTE.htm](http://www.satp.org/satporgtp/countries/shrilanka/document/papers/president_speech_parliament_defeatofLTTE.htm)>

7. Francis A Boyle: The Tamil Genocide by Sri Lanka: The Global Failure to Protect Tamil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Atlanta, Clarity Press 2010,

집단학살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래피드 렘킨(Rapid Lemkin)은 집단학살은 “피억압자의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억압자의 민족 정체성을 주입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고 말한다.’ ……스리랑카 단일국가에 대한 이방인으로서 타밀을 규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수많은 학살, 차별의 과정, 무장충돌의 시기, 궁극적으로는 전면 제거계획의 실행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 결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법정 [www.ptsrilanka.org](http://www.ptsrilanka.org)



상설 민중법정  
사무국

VIA DELLA DOGANA VECCHIA 5 - 00186 ROME